



2020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0. 1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0. 1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CONTENTS



I.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1. 누구에게나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	6
2. One Shot, One Kill!	10
3. NCS는 취업에 필요한 나침반과 거울	14
4. 오늘 퇴사하지만, 내일 또 뵙겠습니다!	19
5. 지피지기 백전불태, NCS 채용의 열쇠	23
6. 조각경력 간호사가 공기업 경력직에 합격하기까지	27



II. 청년인턴

1. 열정 가득했던 3개의 사번으로, 마지막이 될 4번째 사번을 품다	34
2. 내 안의 '나'라는 편견을 깨트려 준 청년인턴	38
3. 나의 꿈을 실현시킨 디딤돌, 청년인턴제도	42
4. 대책 없는 희망·무책임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도움이 된 청년인턴 제도	47
5. 체험형 인턴의 채찍, 채용이라는 열매로	51
6. 청년인턴 5개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55



Ⅲ. 고졸 채용

1. 새와 당신 62
2.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66
3. 재능이 아니라 열정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 나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 71
4.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졸'입니다 75
5. 성공적인 선취업 후진학 79
6. 하나의 씨앗 83



Ⅳ. 지역인재 채용

1. 지역 토박이에서 지역 전문인재로! 90
2.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이야기 94
3. 나의 공기업 입사수기,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대한 제언 99
4.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103
5. 한국남부발전 입사를 향한 걸음걸음 108
6. 지역인재 채용,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 113



Ⅴ. 장애인 채용

1. 손발이 나쁘다면 머리가 고생하면 된다 120
2. 장애채용의 날개를 달다! 124
3. 자폐성장애도 완주하는 취업마라톤 126
4. 청각장애인의 한국남부발전 입사 및 적응기 131
5. 3無 장애인으로 공공기관 입사한 이야기 136
6. 내가 말했지? 할 수 있다고!! 혼을 담은 청각장애인의 이야기 140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and positions.

공공기관 인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 1 누구에게나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
- 2 One Shot, One Kill!
- 3 NCS는 취업에 필요한 나침반과 거울
- 4 오늘 퇴사하지만, 내일 또 뵙겠습니다!
- 5 지피지기 백전불태, NCS 채용의 열쇠
- 6 조각경력 간호사가 공기업 경력직에 합격하기까지

누구에게나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 송○○



한 번에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생을 둘러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진로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에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한 번에 결정짓기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누군가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처음부터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고 졸업한 대학생이 아니었기에 공공기관 입사를 결심하고 합격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을 둘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들보다 다소 늦었을 뿐 결코 채용 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NCS 채용은 지원자의 나이에 초점을 두기보다 지원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기에 때로는 둘러오며 겪었던 경험한 다양한 시간들이 신입이라고 하기에 다소 늦은 28세의 저에게 오히려 플러스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1. 유아교육과 나오셨네요? 그런데 여긴 왜...

사기업에서 주로 받던 첫 질문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지난 대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 교내활동,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등의 어필보다 전공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이미 졸업해 버려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면접 초반부터 한쪽으로 기울면서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들과 동일

하게 서류와 필기전형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면접까지 올라왔지만, 쟁쟁한 경쟁자 속 유아교육 전공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돋보였고 돋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공을 입력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즉 공공기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 2018년 상반기, 빛의 속도로 탈락한다면 '광탈'의 맛을 보다

지방대, 유아교육과, 토익 700점대, 한국사 4급, 워드 2급, 사기업 경력 13개월.

저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제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니, 보여줄 것은 자기소개서뿐이다!'라는 생각에 상반기 내내 화려한 수식어를 써가며 자소서만 공들여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한 30여 개의 서류가 모두 탈락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유치원교사인 친구들이 많았던 터라 빛의 속도로 탈락하는 서류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서류를 합격해야 필기도 치고 면접도 볼 텐데, 서류 합격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였음을 실감했습니다.

3. 채용 공고대로 이루어지는 블라인드 채용이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결과를 확인하던 중, '귀하의 역량은 출중하나~'라는 평범한 불합격 통보 아래 제 서류 점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0점이 되지 않는 점수, 합격 커트라인과 약 20점의 차이인데,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점수 차이가 큰 만큼, 제가 무언가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일 테니까요. 그제야 채용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 자기소개서: NCS 직업기초능력 중 4가지 항목 적격 여부 평가

'적격 여부? 유창하지 않더라도, 묻는 말에 적합한 대답을 하느냐가 점수 획득의 여부란 것인가?' 자기소개서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다른 기업의 채용공고문도 살펴보았습니다. 채용공고문 대부분 평가 항목을

명시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 경험, 자격증, 자기소개서가 있었고, 자기소개서는 비중이 높은 곳을 비롯해 아예 보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왜 제가 그토록 서류 광탈을 맛봤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의 불합격 요인은 무(無)스펙이 자소서만 청산유수처럼 잘 쓰면 그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다 합격시켜 주는 것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공고문 분석 결과, 평가 항목과 그 가중치는 기업마다 달라도, 거의 경험, 경력, 자격증, 교육사항 등 기업별 공통 기본 스펙이 존재하며, 이것을 내가 갖출 때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정량적 스펙을 갖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합격 커트라인이 낮은 인턴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주지는 부산이지만 채용인원이 더 많았던 대전으로 지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덕분에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인턴 동기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격증, 직업교육, NCS, 전공 공부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필기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4. 화려하지 않은 담백한 채용 과정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학교교육에 쓸 것이 없을 때도, 자소서에서 묻는 문항에 마땅한 경험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했던 1년간 약 80편의 자소서를 쓰고 지원을 해보니,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한정적이라도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NCS 채용은 입사 시 필요한 역량만 질문받고, 대답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소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런 문항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창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등등 지원자의 배경이나 스펙을 묻지 않고 입사 후 필요한 역량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입사하면 당연히 협력해야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대처해야 하고, 나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제를 개선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취업을 준비하며 80여 편의 자소서를 작성하다 보니, 특별하고 거창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했던 팀 과제만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팀원들과 협력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했다면 자소서와 면접에서 얼마든지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경험이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도 몰랐던 역량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대외활동이나 수상 경력 없이 자소서와 면접에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NCS 채용 과정은 화려하지 않아도, 요구되는 역량만 있다면 합격할 수 있는 담백한 채용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5. 합격, 그 이후

과거의 저는 좌절에 의해 상처받고 싶지 않아 도전을 두려워했기에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하며 의문으로 시작했던 취업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합격한 후기를 찾을 수도 없었고, 살면서 크고 작은 성취와 도전, 경쟁 경험도 없던 저에게 취업이라는 벽은 너무 두렵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이 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묻지 않았기에 평가 앞에 당당할 수 있었고, 평가 항목과 기준이 명확했기에 차근차근 준비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직업이 주는 삶의 안정도는 물론이며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소중한 성취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의 변화와 그 과정을 SNS를 통해 공유하며 3천명이 넘는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공공기관을 도전하게 된 계기부터 80편이 넘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탈락했던 것, 인턴 기간 에피소드,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새벽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갔던 과정, 면접 후 겪었던 감정 기복, 합격 후 삶의 변화까지 꾸밈없이 드러내며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블라인드·NCS 채용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다고 전하고 싶고, 그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One Shot, One Kill!

한국언론진흥재단 | 최○○



“내일부터 뉴스 제작은 안 합니다.”

방송사에서 꿈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나운서로 1년 이상 뉴스를 진행하며 말 하나하나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뉴스룸의 ‘On-Air’ 불이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 줄 알았던 취업준비 생활. 필수가 아닌 주변 환경에 의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언론사 근무 경험도 있었고 ‘나는 잘할 거야.’란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최종 면접

‘150여 개 기업 중 2곳 연락’ 퇴직 후 6개월간의 제 성적표였습니다. 공모전 수상 10회, 동아리 활동 4개, 만점에 가까운 학점.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지난 기록이 강력한 무기가 될 줄 알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피어나던 여의도의 가을 길, 사무실 물건을 정리한 상자를 들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던 그 길이 어느새 겨울의 쌀쌀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봤던 2곳에 서마져 ‘우수한 인재지만 아쉽게도 저희의 인재상과 맞지 않아’란 대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Off-Air로 남을 것 같은 나의 삶에 언제쯤 불이 들어올까.’ 2019년의 일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번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해 조금 남아 있던 자신감마저 바닥을 맴돌던 때였습니다.

🔍 합격은 누가 하는 걸까? 합격의 조건

‘도대체 누가 되는 거야?’

궁금함 반, 오기 반으로 합격자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NCS 전형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직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면 꼭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영상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직무 역량’이란 키워드가 그날 이후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작성한 자기 소개서를 다시 꺼내 살펴보니 저는 ‘나’만 드러내려고 했지 ‘나와 직무, 나와 기업’에 대해 연결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무기술서를 펼쳐놓고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 탐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고 어떤 곳에 몸담고 살아가고 싶은지 고민했고 ‘산업-기업-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언론 산업의 뜨거운 감자는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내가 느끼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무엇인지, 이 같은 현실이 내 경험에서 드러난 적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더 나아가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직업기초능력과 필요 지식, 태도,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틈틈이 생각하고 분석하며 기록했습니다.

🔍 결과가 아닌 과정을 알아봐주는 면접

“교내 방송국에서 어떻게 기부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었는지 본인의 역할과 과정을 말해 주실래요?”

이런 질문을 해준 면접관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 '결과'보다는 '과정'을 물어봐 주는 면접이었기 때문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중심의 최종 면접은 경험과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간 최종면접이었지만 '나의 경험을 진솔하면서도 담백하게 전하자'란 생각으로 입했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 방송국원, 그리고 학교 행정팀 사이를 동분서주하며 의견을 모았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온라인 기금 마련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을 풀어놓을 때에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생생한 표정이 나왔던 듯합니다. 역량을 차분히 꺼내 놓을 수 있었던 면접을 통해 되레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1차 서류전형에서 꼼꼼히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또한 면접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면접관은 자기소개서에 기입한 제 경험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길러온 역량을 어떻게 재단에서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NCS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평가하려는 역량에 맞춰 항목이 세분돼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처음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를 '나만의 이야기'와 엮어 풀어내고자 오래 고민했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하나하나 단계를 넘을 때마다 숙고의 시간은 제게 나아갈 곳을 비추는 방향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모범답안만 외웠기에 제 안에 충분히 풍부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충분히 면접 상황에 맞게 보여주지 못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신상, 학력, 지역 등 외적인 부분을 걷어낸 면접일 뿐 아니라 '내면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면접이란 점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3차 전형이었던 직무면접과 인성면접은 '미디어와 언론 환경의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 나의 역할'을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더라면 대답할 수 없는 직무능력 중심의 질문으로 진행됐습니다.



'One Shot One Kill'을 위한 필수과정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서류전형 합격 후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최종 합격했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왜 이 공공기관에서 일해야 할까, 내가 이곳에 들어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의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합니

다. 애정과 관심이 단순 NCS 기출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기업-나의 역할’에 대한 나만의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고차 전형에서 공공기관이 나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스테디를 위해 오가던 버스 안에서, 방청소를 하고 점심 도시락을 싸면서도 ‘3박자(산업-기업-나)’를 생각했습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며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시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 된다

퇴사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했지만 입사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푸르른 여름이 오기까지 직무와 관련한 능력과 역량을 찾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공부도 하며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블라인드 채용,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제 끈 꿈이 오늘의 희망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삶의 기쁨이 되는지 준비를 하며 알게 됐습니다.

지원서 작성 이전부터 최종합격 문자를 받을 때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입사원이 NCS 기반 채용을 설명한 영상을 100번은 더 봤을 겁니다. 지원자의 나이, 전 직장 등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원자의 잠재력과 직무에 대한 열정을 보는 채용 자체가 지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입사원으로서 첫 다짐을 잊지 않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취는 갈망하던 그것을 얻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련되고 다듬어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란 말이 제게는 퇴직 후 준비기간 동안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이런 ‘과정의 의미’에 귀 기울이고 ‘과정의 가치’를 알아주는 채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능력중심 채용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3차원(산업-기업-나의 역할)으로 고려해 준비한다면 어떤 지원자도 공공기관 입사과정을 ‘원샷 원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이 품었던 어제의 꿈이 오늘의 희망으로 나타날 날이 곧 오리라 응원합니다.

NCS는 취업에 필요한 나침반과 거울

한국철도공사 | 김OO



Q NCS라는 '나침반'과 '거울'

“NCS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을 때, 선배의 조언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오로지 실력을 쌓는 게 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펙이 실력’으로 통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직무능력만이 실력’으로 통하는 시기에 저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처음 시작했던 2014년은 스펙의 시대였습니다. 좋은 대학, 높은 학점과 토익점수, 다다익선 자격증 등은 실력의 방증이자 높은 몸값의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면서 그 양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스펙보다는 직무능력이 중요시되면서 채용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NCS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자 거울이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짚어 주는 ‘나침반’이자, 나의 직무능력이 무엇인지 비춰주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금 나침반과 거울을 들고 2014년 취준생 시절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 취업 준비에서 중점을 둔 건 '직무 관련 경험'

대학을 다니며 1년 6개월간 준비한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에 입사하기에는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마음속 깊숙이 접어두었던 일이었지만, NCS(직무능력 중심) 채용이 도입되면서 다시금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여 스물여덟 살에 철도기관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을 하던 시기에 진로를 바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1~2년 취업이 늦는 게 그리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격증 목록을 출력하여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할 때마다 영광펜으로 그었습니다. 철도 관련 학과도 아니고 자격증 하나도 없던 상황이라서 남들보다 출발이 많이 늦었기에,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철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철도'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VOC를 통해 철도시설 견학을 신청하여 구로차량기지와 성북승무사업소 현직자를 만나 직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철도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알기 위해 직접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7호선 지하철 안에서 큰 목소리로 철도기관사 취준생이라고 소개를 한 후 승객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운이 좋게도 국토교통부 철도경영프로그램 장학생에 선발되어 2학기 동안 철도정책과 철도경영을 배우며 철도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4학년 때는 코레일 자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장을 직접 보고 느꼈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나중에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에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 코레일 덕후의 '자료 수집 활용법'

코레일에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코레일만 바라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모드로 바뀌어야 하고, 연애를 잘하려면 연애 모드로 바뀌어야 하듯이, 코레일에 합격하기 위해 '나 이 회사에 꼭 갈 거야'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휴대폰 뒷번호를 코레일 대표번호인 7788(칙칙폭폭)로 바꾸고, 도서관에서 집에 올 때는 늘 코레일 사가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며 코레일에 미쳤다고, 코레일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냈다고 했습니다. '코덕'(코레일 덕후)이라는 별명도 이때 생겼습니다. (웃음)

그래서 단단히 미쳐보기로 했습니다. 코레일TV, SNS와 홈페이지, 사보, 논문, 인터넷에서 178쪽 분량의 회사 정보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역사,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원하는 인재상뿐만 아니라 사장님 신년사 안에 있는 앞으로의 비전까지 담아낸 자료였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읽고 또 읽다 보니 '이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넘어 마치 신입사원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코레일에 관한 뉴스를 보면 '우리 회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저만의 자료를 자기소개서에도, 면접에도 활용했습니다.

🔍 자소서와 면접의 무기는 '나, 직무, 회사를 아는 것'

자소서를 쓸 때부터 면접의 시작이기에 서면으로 면접관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 관심과 애정이 묻어날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를 아는 것'과 '직무와 회사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가급적 스무 살 이후의 경험을 연대기 순으로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사소한 경험이라도 배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고, 가치관과 직업관, 인생관을 정립하고 나니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와 미래, 현재의 나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무를 알기 위해서 NCS 홈페이지와 채용 공고문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 전공이나 능력, 관심 등을 고려하여 직무 분야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특정 상황이나 업무의 고충 등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업무를 수행할 때 현재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알기 위해서 무식한 방법이지만, 홈페이지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회사 정보의 8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토대로 현직자를 만나 궁금한 점을 질문해 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요 이슈와 입사 후 포부 관련 질문을 작성할 때 현실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 없이 무작정 자소서를 작성하다 보니 질문에 벗어난 내용이 많았고, 글이 산만하여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자소서 문항에서 문제분석을 잘못하면 경험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 그 결과 평가 요소와 동떨어진 글이 나오게 됩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롭고 오래 걸리더라도 위의 과정을 꼭 거치고 난 후 작성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면접의 주요 전략은 '모범답안'

면접에서는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모범답안을 만든 것이 주효했습니다. 보통 모범답안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공기업 면접에서는 모범답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의 면접을 통해 알게 된 건 면접은 90%의 모범답안에 10%의 재치를 더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만한 이미지에 자신만의 재치 있는 생각을 살짝 입히는 것이 면접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 중 하나는 “다른 지원자는 모두 철도 관련 학과를 나왔는데, 왜 전자공학 전공자가 철도기관사를 지원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철도차량은 기계에서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는데, 특히 KTX 산천은 ‘움직이는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반도체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중략)… 차량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기관사에게 전자공학지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몇몇 면접관은 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진 질문은 “왜 대학교를 10년 가까이 다녔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왜 오래 다닐 수밖에 없었는지, 더불어 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던 것과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면접관 한 분이 몇 학년이냐고 물었고, 3학년 2학기라고 말하자 웃으면서 다음 지원자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준비한 모범답안은 수십 개에 이릅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특히 철도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공손한 태도와 회사에 대한 헌신적인 애정을 보이기 위해 모범답안을 여러 번 고쳐가며 바람직한 면접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채용제도 ‘NCS’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 중 하나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하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였습니다. 이에 NCS는 명확한 기준과 잣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경험과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그 노력에 대해서만 평가하겠다는 취지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가 바로 NCS(국가직무 능력표준)라고 생각합니다.

NCS 채용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직무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쌓아간다면 분명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도 이러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이 나를 알아봐 주어 합격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덧 취업한 지 5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취준생 때의 열정을 현재는 부산과 익산을 오가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쏟고 있습니다. 끝없는 지하 터널처럼 막막하고 불안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겪은 일들, 생각한 것들을 현재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을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멈추지 말고, 한 역 한 역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 퇴사하지만,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최○○



🔍 두 번의 퇴사와 세 번째 입사

한 직장에서 세 번째 신입 소개를 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 번째쯤 되니 아는 사람들 앞에서 대체 또 무슨 소개를 해야 하나 그저 웃고 말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동료들도 민망하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신입소개를 하는 마음으로 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속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인연을 맺은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아직은 새내기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육아휴직대체자로 1년 여 시간을 보내고, 그 후 지역일자리사업 수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드디어 작년, 일반직 채용에 최종 합격하여 정규직이 된 것은 이제 1년을 좀 넘겼습니다. 요즘은 퇴사 걱정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몇 번의 겨울을 함께 보낸 직장동료들인데도, 이제야 진짜 식구가 된 느낌이 드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어떻게 이곳사람들 속에 진짜 하나가 되었는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과학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수련원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천문학이나 과학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저는 과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분야가 좀 다릅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상담심리학을 전공했고, 이전 직장에서 고등학생들 학습·진로상담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직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에는 주어진 업무가 청소년 활동업무 보조였기 때문에, 전공분야가 다른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업무 보조 이상의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과 동등한 역량을 가지고 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같이 우주과학 실험 체험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배우다가, 다른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것을 돕는 단계를 거쳐 나중에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진 지식과 교수법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기관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두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만 국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제가 일반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에 아무도 제가 서류심사를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친한 동료들조차도 천문학 전공자가 아니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NCS가 도입되기 이전의 채용과정에서 경쟁을 해야 했다면 저는 이러한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히 NCS 기반 자기소개서 양식에는 학력·전공을 적는 란도 없었고, 그저 제가 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이 자기소개서가 정말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진 껍데기 스펙이 아니라, 오로지 진짜 제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알기 위해 제 알맹이에 집중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기관에서 일하면서 이 업무를 어떻게 파악했고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경험을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할 수 있었고, 이후 전형인 필기시험과 토론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Q 토론면접에서 빛이 나는 실무의 힘

2차 전형 중 하나인 토론면접에서는 기관의 경영목표와 핵심가치를 반영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원자들과 함께 운영 방법에 대해 논의하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지원자들에게 경영목표와 핵심가치는 동일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대동소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관정책이나 청소년 활동에 관한 연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이 기관의 최신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관에서는 ‘PBL(Project-based Learning) 방식’을 청소년 활동에 도입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기관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되곤 합니다. 토론면접에서 제가 택한 전략은, 제가 겪어온 청소년 활동 현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때 함께 했던 지원자들이 현실적인 적용에 관한 부분에서 공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경쟁을 떠나 누군가와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배워서 남 주겠습니다!

일반직 채용의 마지막 관문은 임원들과 청소년 활동 전문가의 면접심사였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봤던 내용을 토대로 저의 경험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마음 편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면접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서 면접관들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판에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것은 없었지만, 거짓말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저의 간절한 이야기는 “제 인생의 목표는 배워서 남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운 거 남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기관에

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대로 계속 써먹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갑자기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눈물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지원자가 펄펄 우는 것을 달래 주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울지 말라고 다그치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마음을 추스르고 웃으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들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임원이라는 게 참 다행이고, 몇 번을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면접 심사가 끝나고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제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계약직 근로를 마치던 날 “오늘 퇴사하지만, 내일 또 뵈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하고 있는 고흥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집니다. 오랜 시간 저 넓은 우주 속에 먼지같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청소년들에게 별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상황적인 한계에 저를 가두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제가, 오늘 유난히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만약 내가 NCS 기반 채용에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여 지금보다 좋지 않은 고용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공공기관 일자리 채용이 직무능력중심 채용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 제가 이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온 우주가 도운 것이 아닐까하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그 일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어 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기회로 여기며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또 그것을 발판으로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길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그리고 각자 속한 분야에 기여하며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NCS 채용의 열쇠

한국주택금융공사 | 노OO



🔍 들어가며

무더웠던 2020년 여름. 6년간 준비했던 회계사 시험을 포기하고 처음으로 취업준비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신입직원으로 입사하기에는 너무 늦은 32세라는 나이. 부끄러운 학점과 부족한 경험. 자격증이라곤 운전면허증조차도 없던, 말 그대로 無스펙. 요즘 취업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스펙이었지만, 제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 꿈마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꿈을 좇아 나아갈 것인가 고민한 끝에 감히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금융공기업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처절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NCS 채용을 분석하며, 기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취업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피(知彼): 적을 알아야 목표가 명확해진다

저는 취업준비생과 고시생을 둘 다 경험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 본 결과 고시생과 취준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표의 명확성’이었습니다. 고시생은 ‘해야 될 일’

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공부해야 되고, 문제를 얼마나 풀면 합격권에 도달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과목이 실무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노력이 낭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학성적을 더 높인다고, 자격증을 더 따다고 취업이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노력이 직무능력 향상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채용시스템의 불명확성은 노력에 대한 방향성을 잃게 하고, 직무와 무관한 요소에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NCS 채용의 특징은 차별적인 평가요소를 제거하고,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기술·능력·인성 등을 표준화·정량화·체계화하여 서류, 필기, 면접 등 모든 채용전형에 반영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NCS 채용에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노력이 어떻게 직무능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이 갖춰지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채용공고에 전형별 평가표를 제공하였는데, 평가요소를 정확히 알고 전략을 세울 수 있어서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수월하였습니다. 취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해매던 저에게 이러한 NCS 채용은 밤바다의 등대처럼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기업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주택금융연구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연구보고서, 이슈리포트, 각종 통계치 등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3년치 연구보고서는 모두 읽어 보고 요약해 두어서 면접 때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CEO 신년사, 뉴스기사 등을 통해 공사의 지향점과 현재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상위기관 정책과 KDI 연구보고서를 찾아보면서 기업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면접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임원분들과 경영진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임원분들의 관점을 알게 된다면 면접 준비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 경우는 이를 기반으로 심층면접과 임원면접의 1분 자기소개를 달리하였습니다(역량중심→가치관중심). 그리고 이에 더불어 임원분들의 사진을 인쇄하여 벽에 붙여두고 면접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임원분들의 얼굴이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고객을 알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야 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직자 인터뷰에 그치지 않고 더욱 큰 차별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객 인터뷰, 은행원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직접 발로 뛰던 것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는데, 다행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기(知己):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취업준비생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경험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취업이 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지원 기업을 늘리거나 어학점수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NCS 채용에서는 '나를 아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보유한 역량을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맞게 끌어낼 수 있으며, 경험 또한 직업기초능력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게 됩니다.

투명한 결과 공개 또한 NCS 채용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모든 전형에서 점수와 등수를 공개하였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에, 만약 내가 떨어지게 되어어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 면접 또한 '자신'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중 하나는 대표적인 경험 4~5개를 아주 상세히 작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모든 질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 하나당 A4 용지 한 쪽 분량으로 그 당시의 상황·생각·느낀 점 등을 자세히 서술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NCS 직업기초능력과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NCS 홈페이지에 가면 직업기초능력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예로 들자면, ‘의사소통’이라는 키워드가 5개의 소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의 정의와 세부요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통에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뻔한 말보다는 직업기초능력 정의에 따라 ‘대화에 대한 피드백을 습관화하는 의사표현능력에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경험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결과, 서빙 아르바이트 경험이 직무에 꼭 필요한 민원응대 경험으로 탈바꿈되는 등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던 경험들을 정교하게 재단된 옷감처럼 기업에 맞게 최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NCS 면접의 단골항목인 도전·창의·혁신·성공 등의 키워드를 하나의 경험으로 묶음으로써 암기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답변의 디테일은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초점을 맞추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크게 늘렸습니다. 나의 가치관, 지원동기, 성향 등을 깊게 고민하며 정말 내 자신에 대해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뻔하고 착한 답변보다는 솔직담백하게 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꿈꾸던 기업인 주택금융공사로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제 모습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매일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NCS 채용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학교 고시반에서 쓸쓸한 겨울을 맞이하는 고시생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 저처럼 부족한 스펙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06

조각경력 간호사가 공기업 경력직에 합격하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 변○○



2020년은 제게 특별한 해이고, 이러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곧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로 올해 8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경력직에 우대요건 없이 필수요건인 3년 경력 턱걸이로 합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렵다던 공기업 보건관리직에 직무능력중심 채용으로 당당하게 입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Q 이십대, 꼬여버린 조각경력의 간호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대학병원에 취업을 한 친구들의 행보와는 다르게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전문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2년간의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고, 창창할 것만 같았던 제 인생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꼬여버렸죠. 이제 와서 후배들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뒤늦은 취업시장으로 뛰어들지도 못하고 바로 채용이 가능한 건강검진센터 아르바이트, 2차병원 병동간호사, 보건소 기간제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간호사 취업시장에서 기피하는 ‘조각경력’의 간호사로 이십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Q 서른 살, 안정을 찾아 정착하다

그러다가 서른이 된 해에 이젠 좀 안정적인 삶을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떠밀리듯 선택한 진로는 바로 산업간호사였고, 이 길로 무조건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아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회사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조금 늦기는 했지만 '나의 일'에 대한 애착을 갖기 위해 관련 대학원 진학도 하고, 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은 무조건 참여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도 안정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면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생각 역시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경력직 공고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Q 제한 없음, 편견 없다는 공기업 채용

우연히 알게 된 이 채용공고는 저를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전 기관으로 있는 공사에서 간호사를 채용하다니,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정규직 산업간호사의 자리는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되지만 한다면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를 봤을 때는 너무나 문턱이 높았습니다.

우대사항은 해당 없음, 필수요건인 경력사항은 3년 턱걸이였고 관련 자격증 또한 없었으며 게다가 임신부인데 운 좋게 서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뽑아 주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고 불가능하지만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채용과는 다르게 전문경력직 채용은 서류심사와 전문면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서류에서 붙을 확률이 희박하지만 어떻게 보면 NCS 시험을 준비해 보지 않은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기업 채용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 서류심사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며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도 무엇 하나 뚜렷한 특징이 없는 조각경력이었고 관련 자격증도 응시지원 조건인 간호사뿐이었고, 수상실적이나 저서도 없었으며, 우대사항조차 포함되지 않는데 이러한 내가 지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생각하며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동기와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업무성과를 기술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업무를 하며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수행했는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를 통해 어떻게 해당 직무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정리하면서 '나의 일'에 대해 더 잘 분석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전문면접은 나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기회의 장

전문면접은 PT면접과 질의응답으로 4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쓴 내용을 기반으로 PT발표 자료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성과 위주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발표는 많이 해보았지만 나를 브랜드화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였고 주요 담당직무에 기반하여 저의 경력과 제가 한 일을 나타내면서도 공기업에서 원하는 업무들과 관련된 성과를 나타내도록 작성했습니다. 저의 역량 중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능력을 4가지를 뽑아 입사하면 하게 될 일들과 관련지어 적어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준비한 만큼 발표를 하였고 면접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압박면접이 아니었고, 정말 이 기업에 부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관련 경력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고보다 그 직무에 더 적합하고 그 업무를 더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기업에 관심을 갖고 이 업무에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저는 소신껏 대답을 하였습니다. 면접관이 보기에

임산부 지원자라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꿈꾸었던, 펼쳐 보이고 싶었던 업무들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제가 공기업에 입사하여 보건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면접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새로운 곳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면접 전문가도 아니고 이직 준비를 계속해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저의 사례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내가 뛰어나더라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떨어지고, 내가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그 직무에 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붙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직무능력중심 채용의 특징이 아닐까요?

그건 열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경력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자격증이 없다고, 우대사항이 없다고, 임산부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했다면 이러한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직무능력중심 채용에선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이니까요.

그러니 제발 미리 겁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세요. 나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로써 그동안 모아온 조각경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일한 지 두 달, 새로운 일을 배워가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일을 성취해 나가는 데 뿌듯함을 느끼며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면서 '왜 내가 뽑혔을

까?’하는 의구심이 ‘아, 이래서 날 뽑아주셨구나.’라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과정에서 보인 관련 직무에 대한 열정과 이를 위한 노력, 제가 가진 비전과 포부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합하였던 것입니다. 저 또한 이를 통해 이렇게 저에게 잘 맞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직무능력중심 채용에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I

청년인턴

- 1 열정 가득했던 3개의 사번으로, 마지막이 될 4번째 사번을 풀다
- 2 내 안의 '나'라는 편견을 깨트려 준 청년인턴
- 3 나의 꿈을 실현시킨 디딤돌, 청년인턴제도
- 4 대책 없는 희망·무책임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도움이 된 청년인턴 제도
- 5 체험형 인턴의 채찍, 채용이라는 열매로
- 6 청년인턴 5개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1

열정 가득했던 3개의 사변으로, 마지막이 될 4번째 사변을 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금융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세 번째 도전 끝에 당당히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부산지역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 선임주임입니다.

저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서로 다른 4개의 사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코에서만 4개의 사변을 가질 수 있게 된 특별한 저의 경험에 대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변 ① 11172*) 2018. 3월, 생애 첫 직장 - 4개월간의 서무보조 사원으로 출발

저의 첫 번째 직장생활은 캠코 국유재산지원부와 국유증권관리부의 서무보조 사원이었습니다. 입사 전에 밖에서 생각했던 공사는 매우 보수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의 정체된 조직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무보조 업무를 하면서 캠코의 기업문화나 분위기에 크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직급과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서무보조인 저까지도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유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입사 전에는 잘 몰랐던 캠코의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사 전, 캠프코의 가계나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사업도 캠프코가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 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업 분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무보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캠프코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 캠프코 입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 (사번 @ 12108*) 2019. 3월, 두 번째 입사 -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 5개월간의 체험형 청년인턴 기회

저는 '캠프코를 더 알아야 최종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고 2019년 상반기, 부산경제진흥원의 청년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캠프코에 청년인턴으로 두 번째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지원총괄부에 배치를 받아 가계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턴생활 동안 1차 상담을 통한 담당자 안내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특히 전화민원 상담업무는 처음 경험해 보는 업무였습니다. 격양된 감정을 표현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민원인이 많아 당황하는 일이 많았지만 저 나름의 매뉴얼을 만들어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① 경청→② 안내→③ 이해 여부 재확인'의 순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진심을 다한 소통으로 민원인의 고충에 공감하였습니다.

저의 작은 친절에 감동하신 민원인들의 감사인사는 저에게 용기와 보람을 주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영역이나 업무 권한이 늘게 되면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캠프코에서 근무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일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느낄 수 있어 평생을 다녀도 힘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인턴 생활은 제가 캠프코 입사에 대하여 더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심찬 마음가짐으로 2019년 상반기 인턴 생활 중에 입사시험을 또 치렀으나 다시 한 번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2번의 탈락에도 입사에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은 인턴 생활에서 얻은 보람과,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항상 따라오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될 때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번 ③ 12512*) 2019. 11월, 채용형 청년인턴 합격 -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

2019년 하반기 입사를 목표로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 왔던 필기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두 차례의 필기 탈락을 통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채우기 위해 CPA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채찍질했습니다. 두 달간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공부하며 노력한 결과,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라는 산은 넘었지만 아직 저에게는 2번의 면접이 남아있었습니다. 1차 면접은 1박 2일로 진행되고 면접의 형태도 여러 가지여서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면접은 처음이라 준비할 것이 많았기에 스터디에 참여하였습니다. 스터디원들과 모의 면접연습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대답을 못할 때마다 좌절하기도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믿으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캠프 업무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등을 읽으며 공부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질문 내용이 최근 캠프 관련 뉴스들이어서 1차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최종면접만을 남겨두고 저는 캠프 외의 다른 회사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복합 면접스터디를 꾸렸습니다. 여러 분야의 친구들과 스터디를 진행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스터디를 시작했을 때 아직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던 저는 복합 면접스터디를 통해 한 층 발전하여 2차 면접까지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캠프의 채용형 인턴으로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조별 전환 PT 발표와 OJT 과정을 통한 전환 평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채용형 인턴 생활을 착실히 수행하고 전환 PT를 열심히 준비한 결과, 저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저는 드디어 캬코의 정규직 신입직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오직 캬코만을 바라보며 준비해 왔던 저에게 캬코는 이제 목표가 아닌 현실이 되어 제 인생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되었습니다.

① 사무보조→② 체험형 청년인턴→③ 채용형 청년인턴을 거쳐 ④ 선임주임이 되기까지 저는 총 4개의 사번과 4개의 이메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합격과 동시에 일편단심으로 캬코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여 남들과 달리 4개의 사번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저는 훈장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는 끝났지만 저의 직장 생활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무보조와 인턴을 하며 품었던 초심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캬코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수기를 읽는 모든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의 '나'라는 편견을 깨트려 준 청년인턴

한국수자원공사 | 김○○



🔍 자신감만으로는 안 되는 취업

남녀평등의 사회라 누구나 인식하지만 면접을 보면 기계라는 특정 직무에서 여자인 것은 약점임을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내 실험실 TA로 활동하면서 실험기기를 관리하고 실험을 도우며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저는, 당연히 졸업 후에도 기계가 가득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으리라는 자연스러운 수순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직무에 지원해 면접을 볼 때면, 또래 여자들보다도 몸집이 작은 저는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자신감이 있었고 편견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지원하셨나요? 직접 작업복을 입고 큰 힘을 쓰고 기름때를 문혀가며 일을 합니다. 현장 경험도 없는 여자가 하기에...”라고 말끝을 흐리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장의 이슈는 결국 자신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불합격이 되었고 심지어는 면접질문을 하나도 못 받은 회사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면접관이라도 여자는 기계 일 시키기 못 미더울 거야'라는 편견도 생겼습니다. 현장 경험 없고 기계공학을 전공한 여자, 그게 바로 제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키 153cm의 여자가 포항~울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기업에서 일하는 선배를 만나 공기업 채용제도에 관심이 생겼고 특히 가장 귀에 먼저 다가왔던 것이 바로 블라인드 중심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청년인턴 제도였습니다.

수많은 청년인턴 기회 속 기술직이면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고민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민층시설개선사업 청년인턴에 지원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면접이었지만, 처음으로 신입전 없는 시선을 받을 수 있었고 저 또한 준비한 답변을 모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격 소식을 듣고 5개월간 체험형 인턴으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지역의 LPG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차별적 설움에서 그토록 갖고 싶었던 현장 경험은 직장인으로서의 의사소통 방법, 공익을 추구하는 기쁨, 공사 이름의 무게감과 직장인의 책임감 등 값진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었고 무엇보다 실제 도면을 보고 검수하는 현장 경험을 쌓으며 업무 역량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업무 진행에서 사업자가 시설개선을 한 뒤 이를 증명할 서류를 보내면, 그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자와 검수 날짜를 약속해 검수를 진행했습니다. 평소 어른을 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저는 순리대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금방 적응할 수 있었지만, '부적합'으로 판정이 날 때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설치해야 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던 사업자는 심하면 욕을 하거나 요청하신 수정 사항을 무시하거나 관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청렴에 어긋나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무척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나, 곧바로 학생 신분을 벗어난 현장 실무진으로서 부당함에 맞서며 정직과 미움받을 용기를 단련시킨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의 청년인턴 활동이 끝나고 그동안 저는 '여자'라는 편견이 아니라 '저'라는 편견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여성의 직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전 취업 활동을 되돌아보며 회사의 Needs에 부합한 '직장인'의 모습에서 부족했던 점을 선별하여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진정한 업무 경험으로부터 얻은 실무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필기 성적을 뒤엎은 면접, '청년인턴'이 준 자신감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고 저 또한 보람차게 일할 수 있었고 공공기관의 업무가 어떤 일보다 보람으로 다가왔기에 입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기계직으로 일하고 싶었기에 지원하고 싶은 공공기관이 추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가 꿈꾸던 일터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고 지원하여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험 점수는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합격문을 닫고 들어온 점수였습니다. 최종 합격 점수 비중은 시험이 50%, 면접이 50%로 시험 성적이 낮으면 최종 합격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면접스터디에서 저보다 성적이 10점 높은 사람을 보고 주눅이 들기도 하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고 '청년인턴' 현장 경험을 앞세우고 회사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보 e-book을 보면서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단순한 면접 대답에도 '청년인턴'의 경험이 들어가면 으레 말에 힘이 실렸고 저 또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간 면접은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저를 드러내는 면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관심 가졌는지, 관련 지식을 공부했는지, 어떤 직장인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등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고 두려운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쉽게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막연히 멀게 느껴지던 취업이 제 앞으로 다가왔음에 실망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상에서 취업준비생이 되어 시험공부를 하던 중 꿈같은 추가 합격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입사하여 채용형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큰 의미 없어, 여차피 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시키는 거야'라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면 저에게 찾아오지 않을 행운이었음을 잘 알기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기 모든 취업준비생을 응원합니다

‘노력하는 자는 찾아온 행운을 알아보고 놓치지 않는다’

저는 찾아온 행운을 놓치지 않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는 관점에서 3가지 행운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취업 준비가 주는 아마득한 우울함에 잠식되지 않도록 우울한 만큼 공부하고 ‘청년인턴’이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수시로 챙겼습니다. 둘째, 9시부터 18시까지 규칙적인 삶을 지내며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며 찾아올 행운을 기다렸고 스스로 ‘난 부족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야’라며 응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찾아온 3가지 행운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국가지원제도인 ‘청년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던 행운. 둘째로, 쟁쟁한 경쟁자 사이에서 NCS 시험과 전공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행운. 셋째로,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추가합격의 행운. 특히 ‘청년인턴’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이 제게 자신감을 회복시켰기에 가장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맺으며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공계 여자 취업준비생의 현실적 불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남녀를 구분 짓는 오류를 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존재하는 편견을 깨트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겪어본바 취업 준비는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노력이 적은 게 아니라 단지 행운이 늦게 찾아오는구나’란 마인드로 무장한다면 꼭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된 행운이 찾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나의 꿈을 실현시킨 디딤돌, 청년인턴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



🔍 졸업하면 뭐하니?

포항 토박이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던 제게도 “취업”이라는 벽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졸업을 하면 드디어 포항을 떠나 서울로, 못해도 대구로 갈 것이라 상상했던 재학생 시절 저의 모습과는 반대로 취업의 벽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지원하다

취업의 세계에서 저는 지방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토익 700점, 흔한 한국사 자격증 하나 없는 “무스펙” 취준생(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중 하나는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하던 도중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교수님께서 “그러려면 입법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니?”라고 대답하시며 저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제 멧쩍은 웃음을 본 교수님께서 “대신 제도나 정책을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어떨까?”라고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당장 그런 곳에 입사하기에는 제 스펙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먼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무를 찾고 업무 내용들을 읽어 보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었기에 도무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고 ‘에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되겠어’하며 반신반의로 지원했습니다.

🔍 경험 중심의 자기소개서, 워킹 아저씨와의 면접

처음 써보는 NCS형 자기소개서는 다른 기업들의 자기소개서 형식과 달랐습니다. 스펙과 능력을 나열하는 칸 대신, 실제 제 경험을 진솔하게 써야 했습니다. 면접도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본 면접에서 “우리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워킹 아저씨로 생각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졌고 편안하게 면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으로 5개월간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요?

바야흐로 첫 출근 날, 3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한 시간이나 서둘러 온 탓에 일찍 출근한 과장님께서 사무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정리하는 민원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징수팀, 검진을 독려하고 금연사업을 하는 건강관리팀... 다양한 부서를 소개받으며 “나는 과연 어떤 곳에 배정받게 될까?” 두근거리며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팀 팀장님께서 설레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인턴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공공기관이라니!

‘건강보험공단에 인턴으로 일하러 왔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는 어떤 곳이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다른 인턴 동기들은 근무 중인 직원들로부터 환영받으며 인사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부서 직원들의 자리는 군데군데 비워져 있고 “어르신!”하며 통화 중인 직원들의 큰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자리에 앉아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챙겨주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팜플렛을 보며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돕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자 어르신 집으로 출장을 나갔던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노인장기요양보험부서 직원들로부터 다짜고짜 “○○씨는 사회복지사라며! 요양직으로 입사하면 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험공단 내 요양직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워 온 사회복지를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라니! 부서 배치를 받았을 때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앞으로 경험할 요양직의 업무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 출장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을 경험하며 저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배우고 실제 공단의 업무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를 경험하며 호칭이나 말투 등 나의 말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대리님, 과장님, 팀장님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직급이 낮든지 높든지 서로 높여 주는 모습을 보며 공공기관의 수평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 처리 시 변화가 생길 때는 내 생각과 판단보다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상위의 직원분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기 에 어느 기관보다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의 업무 중 하나로만 알고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로 직원들과 출장을 동행하며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다니며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상황과 니즈를 파악하고, 신청서 상담이나 전산 접수를 통해 업무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민원을 응대하며 생긴 저의 노하우로 실제 민원을 설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며 늘 친절만 고객만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어르신들의 아들딸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욕으로 표출할 때는 전화를 받으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메모를 하고 있는 손이 떨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을 더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아팠을 때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나라도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당장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딱 잘라서 거절하기보다,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와 제도를 연계해 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민원 응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취업 원정대

위에서 배웠던 실제 업무와 태도뿐만 아니라, 저는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소중한 인연들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턴 동기들과 인턴이 끝난 이후에 취업 스테디를 만들게 된 것인데, 이 취업 스테디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입사에 대해 더욱 소망을 품고 나태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함께 달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턴들이 각 부서에서 경험한 업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공단의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턴으로 일할 당시 입사했던 신입 직원분들의 현실적인 자문과 부서 내 과장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마침내 저는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반기 신입직원 채용에서 요양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이후 주임으로서의 생활과 청년인턴으로서의 생활이 마냥 똑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청년인턴을 경험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청년인턴을 하지 않았다면 출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민원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부족했을 텐데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실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기에 입사 이후 맡은 업무들을 보다 수월하게 처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턴을 할 때 근무했던 대리님, 과장님들과 입사 이후에도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업무를 할 때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힘이 됩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 지사에 있는 직원에게 업무를 요청할 일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인턴 시기에 같이 근무했던 과장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며 업무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합니다. 이처럼 청년인턴제도는 사회복지 행정가로서 제도를 운영하고 싶어 하던 저의 막연한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디딤돌(Step-stone)이 되었고, 저의 꿈을 실현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글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게 하는 디딤돌이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책 없는 희망·무책임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도움이 된 청년인턴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



🔍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도전해도 괜찮아

2016년 2월, 군 휴학을 포함한 6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별다른 스펙과 경험이 없었던 저는 당연히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관련된 직종만 지원하다 보니 탈락의 연속이었는데 우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공공기관 행정 업무 및 민원응대에 관심도 있었고 마침 우대 자격증도 몇 개 보유하고 있었기에 바로 지원, 청년인턴에 합격했습니다. 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나를 바로잡아 준 청년인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기간은 총 5개월로, 보통 사소한 일을 하거나 기관의 배려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이 공대라 행정 업무와 무관한 저에게는 이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했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든 보여드리자고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먼저 학교, 군대에서 배웠던 문서 작성능력을 바탕으로 직원분들이 전화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선번호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자리에 따라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므로 그 시선을 고려해 해당 자리의 내선 번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또한 팩스 분류 작업 시에도 좀 더 업무처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도록 담당자별 팩스 종류를 파일로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터 공유를 직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얼을 만들어 나눠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좋게 본 팀장님은 제게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해 주셨고, 학교·군대에서 배웠던 행정사무 능력, 콜센터와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배웠던 고객 응대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공단 업무를 하면 할수록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고 해당 직무가 저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아쉬움을 뒤로하고 청년인턴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입사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 준비 과정

하지만 공단 입사의 길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첫 지원에서 1차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자 저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그 결과 청년인턴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반 사기업 지원서와 다름없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인턴을 하며 기록해 두었던 일지를 활용하여 자기소개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결과 1차 서류전형에 통과, 어렵게 필기시험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필기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필기시험 준비를 위해 취업 스테디를 만들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준비와 동시에 다음 전형인 면접도 생각하며 인턴을 했었던 지사에 종종 방문했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민원을 응대하고

설득·이해시키는지 관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업무적인 지식 숙달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업무 지침 숙달이 중요했고 다른 것보다도 독해력이 급선무였습니다.

그 후 저는 책, 신문사설, 비문학 문제집 등 읽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보기 시작했고, 스터디 모임을 통해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번의 시험 탈락이 더 있었지만 2017년 하반기, 최종 면접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 관문, 최종 면접, 그러나.....

면접 전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면접 전 일주일 동안 매일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예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지만, 결과는 다시 ‘탈락’, 합격의 문턱에서 바로 떨어진 만큼 그 충격은 배가 됐습니다. 한동안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자신감도 떨어져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청년인턴으로 제게 도전할 기회를 준 소중한 곳이었기에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서류와 필기는 여러 번 지원한 만큼 쉽게 통과할 수 있었고 다시 잡은 면접의 기회, 저는 지난번 면접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 후 면접 준비를 위해 기억을 되살릴 겸 다시 인턴을 했던 지사를 방문하여 과연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대민 업무에서 필요한 중요한 대화의 자세로 ‘침착함과 친절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자세를 기반으로 다시 면접스터디 준비를 했고, 인턴을 하는 동안의 경험과 공단 직원들의 업무 자세를 떠올리며 공단 직원이 되는 상상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다섯 번의 도전 만에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포함해 2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비록 네 번의 탈락을 경험했지만 다섯 번의 도전 만에 얻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격 타이틀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4전 5기, 천천히 가더라도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

2016년 하반기 서류탈락

2017년 상반기 필기탈락

2017년 중반기 필기탈락

2017년 하반기 면접탈락

2018년 상반기 최종합격

일부 사람들이 보기엔 제 준비 과정이 느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처럼 긴 인생 과연 빠르게 가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란 말이 있듯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데에 '청년인턴'이란 제도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불안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취업 준비라는 깜깜한 터널의 끝에 여러분이 바라던 그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체험형 인턴의 채찍, 채용이라는 열매로

한국자산관리공사 | 성○○



🔍 체험에서 채용으로

“안녕하십니까! 국유재산기획처 성○○ 선임주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기까지 정확히 1년이 걸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체험형 인턴을 경험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인턴을 하면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아 제가 능력상으로 선배님들께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웠고, 민원 전화를 받더라도 인턴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의 경험과 선배님들의 조언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함께해 주셨던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늦은 시작, 뒤처졌다는 불안감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몇 년 간 실패를 경험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위축되고 주변에서

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저에게 남은 것은 시험을 치기 위한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급하게 취업에 유리하다는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사기업,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고 운 좋게 면접에 가더라도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인문대생으로서 대학에 입학하여 시험공부만 하던 저에게는, 다른 지원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직무적합적인 요소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 간 채용 시장에서 제가 얻은 것은 뒤처졌다는 불안감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채로 채용에 도전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지만, 급하게 정한 선택지인 만큼 저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첫 발을 내딛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채용공고 카페에서 우연하게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체험형 인턴 공고를 봤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익숙지 않은 기관명이었으나, 저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AI 면접’이었습니다.

“로봇이 지원자를 평가한다면 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더라도, 당연히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관점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캠큰은 체험형 인턴 채용 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과감히 잘라내고 AI 면접 결과만으로 채용하는 획기적인 채용을 기획했습니다. 채용 칼바람에 지친 저는 신선한 채용 프로세스에 끌려 바로 지원했습니다.

AI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실제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이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기본 질문, 심층 질문, 퀴즈를 풀고 면접을 마쳤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Q 체험형 인턴이라는 채찍

소규모 스타트업 외에는 사회에서 단체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긴장과 설렘을 안고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미지는 ‘역동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주어진 일만 하고 퇴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캠프는 그 역사만큼이나 사무실 분위기, 그리고 선배님들의 업무 마인드 또한 진취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선배님들은 저에게 업무를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제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체험형 인턴 당시 맡았던 업무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 관련 기획 서무 및 신규수탁 지원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국유지 출장 지원, 소송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고, 추후에 이 경험들을 토대로 채용형 인턴 합격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며, 저에게는 체험형 인턴이 일종의 채찍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고객분들께 쓴소리를 듣고, 오후에는 구두를 신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몸과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추후 정식 입사한 제 모습을 그려보며 마음을 다시 다지고, 제가 하는 경험들이 앞서 말씀드린 채용 시장에서 저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더욱 열심히 업무에 열중했습니다.

Q 체험형 인턴으로서의 마인드

선배님들께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체험형 인턴을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존경, 죄책감, 그리고 열정이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들었던 생각은 존경심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선배님들도 있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3개월 간의 짧은 인턴 생활이었지만 국유 재산 업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선배님들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책감을 업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소한 업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 발 먼저 달려가고 일을 하면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진다는 마인드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선배님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실제 면접 시에 직무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는 업무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이라는 열매

이렇게 체험형 인턴을 수행하고 나서 1년 후에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용이라는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체험형 인턴에서 채용형 인턴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불안감에 떨지 않았습니다. 체험형 인턴을 통해 얻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동일하겠지만, 특히 캠퍼는 면접 시에 기업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이 당락의 결정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체험형 인턴 경험은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기업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일은 과도로 깎고, 나무는 톱으로 베듯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그 기업에서의 인턴일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무기를 다듬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채용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체험형 인턴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마치 자신이 정직원이 되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배워 나간다면, 추후에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계신다면, 돌아간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체험형 인턴에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또 인턴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턴 5개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한국저작권보호원 | 박○○



🔍 청년인턴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꾸준히 필기시험 공부를 하고, 가산점 대상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긴 했지만, 아르바이트 2년과 학교 연계 현장실습 3주가 전부였고 단순한 자료입력 업무 및 사무직과는 관련 없는 업무였기에 소재로 사용할 거리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게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청년인턴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여름, 도로교통공단 청년인턴에 선발되면서 제대로 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어제보다 더 성장한 나

저는 수도권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면허 필기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험 접수 및 좌석 배정, 시험 결과(합격/불합격) 판정, 장애인 또는 고령자분들의 시험 진행 보조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수험자께서 오늘이 근무 첫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근무가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고급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일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마냥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면허 취득 성수기인 방학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보러 왔는데 하루 최대 630명이 시험에 응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화장실을 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또 시험을 컴퓨터로 응시하는데,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께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또 영어를 거의 쓰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을 상대할 때는 손짓과 몸짓, 휴대전화 번역기까지 동원해서 설명하느라 애를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어르신들께서도 단번에 이해하실지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영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아랍어로 된 업무 안내서도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에는 간단한 표현 정도는 암기하고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고 저는 자연스레 ‘적극성’과 ‘자율성’이라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께서도 저의 이런 점을 높이 사주셨고, 더 책임감이 부여되는 업무도 할당해 주셨습니다. 또 중국인 수험자에게 발음이 좋다는 칭찬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첫 시작은 서툴고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갖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화를 익힌 이유

인턴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저는 ‘배려심’을 최고의 가치로 꼽고 싶습니다. 간혹 청각장애인분들께서도 시험을 보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메모지에 글을 써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화를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화로 안내해 드리면 공통분모가 생겨서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고, 긴장감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꺼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등 업무에 필요한 표현을 익히고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수화를 통해 농인들과 소통하고,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 수화로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뿌듯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수화를 익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 덕분에 자기소개서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었고, 저만의 색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청년인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인턴을 마치고 저는 2020년 상반기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채용문이 좁아졌고 저는 민간기업 및 사기업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사기업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청년인턴 경력을 안 좋게 본다,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등 부정적인 정보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편견을 뛰어넘고, 2020년 상반기에 민간 유통기업을 포함해 총 2곳에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전공에 대한 질문과 청년인턴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다소 공격성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업무를 하며 배운 적극성과 자율성을 내세웠고, 청각장애인을 응대하며 느낀 배려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답변을 들으시고 해당 기업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에 대해 칭찬해주셨고 저는 마침내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나에게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5개월이라는 경력도 얻었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에 쓸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거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턴을 통해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귀중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청년인턴을 하기 전,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공고가 올라오면 소위 ‘묻지마 지원’을 한 적도 있었습니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Ⅲ

고졸 채용

- 1 새와 당신
- 2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 3 재능이 아니라 열정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
나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
- 4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졸'입니다
- 5 성공적인 선취업 후진학
- 6 하나의 씨앗

새와 당신

한국철도공사 | 조○○


 1. 글을 시작하며

새와 나
 나는 언제나 꿈꿨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날아갈 수 있으면서
 새는 왜 항상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문득 나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 하룬 야히아

하룬 야히아 시인의 '새와 나'라는 시입니다. 날 수 있음에도 날아가지 않는 새를 보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로 하여금 독자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쇠줄에 다리가 묶인 코끼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줄로나 묶어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드넓은 바다와 육지를 모르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쇠줄에 묶여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25살의 남성입니다. 보통은 군대를 다녀온 고학년 대학생의 나이이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였으나, 입학은 포기하고 당시 국내 13위의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꿈을 안고 입사한지 반년이 채 안 되어, 첫 회사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휘청거렸고 그 큰 회사의 불황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후 나라의 부름을 받아 해양경찰에 입대했고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경비함정을 타고 중국어선을 단속하였습니다. 복무하며 매일 7시간씩 공부하여 제대를 앞두고 이력서 한 장 없이 편지 하나만으로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일하는 대기업의 사장직할 전략혁신팀원 6명 중 최우선 멤버로 뽑혔고, 이후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여 합격했고 2년 넘게 일하고 있으며, 20살에 가지 않았던 대학교에 다시 합격하여 일과 함께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들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이 입사 수기에 녹여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그토록 가고 싶었던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였으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난 경영인이 되고 싶은데 경영학과를 간다고 경영을 할 수 있을까? 20살에 대학가에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연애를 하다 군대를 다녀오면 난 그저 남들과 똑같은 24살, 군대 다녀온 대학교 2학년 남자 중 하나이지 않을까? 나에게 정말 대학이 필요할까? 제 대답은 'No'였습니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부모님의 울타리로부터 독립하여 주체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때 한 대기업의 채용공고를 보았고,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대학교를 포기하고 집에서 400km 떨어진 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미쳤냐 그랬고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저와 제 주변 모두 그 결정을 신의 한 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안고 거제도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입사한 지 4개월 뒤인 2015년 7월에 회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숨겨 왔던 엄청난 방만경영과 분식회계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되었고 회사 주가는 반 토막이 나더니 결국 주식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걸 걸고 온 회사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릴 때의 '섬뜩함'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군휴직을 하고 해양경찰에 입대하였습니다. 제대할 때 회사가 살아있을까? 내 나머지 인생을 이 회사에 맡겨도 될까? 불안감이 들었고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고민하며 책을 읽었지만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왜 해야 할까’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20년 남짓 살아오며 보아온 고작 몇 개의 직업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그게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삶을 돌이켜보니, 저는 누군가와 감정과 감동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행복관을 갖추고 나니 직업은 행복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수단들 중에서 내 재능을 활용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을 추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 감동을 만들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한 가정을 멋지게 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존경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가방이란 것이 왜 필요할까?’라는 본질에서 시작해 ‘Less is more’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가장 심플하고 편리한 일상의 가방을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가치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전달되었고, 그에게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 고졸에, 조선소 1년 다닌 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패션, 잡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민이 들던 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떠올렸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림이 하는 역할이 50이고, 보는 사람의 눈이 50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 보는 사람의 수용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전 대표님이 이력서와 학벌이 아닌 편지 하나만으로 뽑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의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껏 하신 말씀들, 회사의 프로젝트, 한 번은 서고를 보물창고라며 찍어 올리셨는데 그 책장에 있는 모든 책들을 사 읽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새벽 2시가 되어도 그곳에 갈 생각을 하면 설레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9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공부하며 적어 나간, 하나하나가 보물 같은 문장들이 두꺼운 노트에 쌓여 몇 권이 되었습니다. 훗날 대표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것 같아요.”라고 말입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더하고, 빼고, 쓰고, 고치며 3개월이 지났습니다. A4 3장짜리 편지를 쓰는 데 1년이 걸린 것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편지를 보냈고 답장엔 이게 22살 남자분이 쓸 수 있는 편지인가, 한참을 생각하면서 읽었다며 회사로 찾아오라고 쓰여 있었고 대표님을 뵈고 면담을 하고 이직을 확답 받았습니다. 제대 이후 저는 그 회사에 가지 않고 첫 회사에 복직하여 회사의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노력했고 단 6명을 뽑는 전략혁신 TFT팀에 지원하였습니다.

양식과 절차가 있었지만, 담당 부장님께 이 회사에 왜 돌아왔는지 왜 저여야만 하는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장님께서 따로 면담을 요청해 오셨고 전 결과 발표 2주 앞서 최우선 멤버로 팀에 발탁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뜻이 있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도무지 회사 업무와 병행해서는 필기조차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수진에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아무 것도 없는 고졸 백수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2018년 코레일 상반기 고졸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면접에서도 최종합격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20살에 가지 못한 대학교에 지원하였고 그 또한 합격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단 하나뿐인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를 솔직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한 치의 꾸밈도 거짓도 없는 저의 이야기였고 그 글의 신빙성은 면접에 확신에 찬 제 얼굴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NCS 또한 우리 인생 전반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알아내는 시험입니다. 시험 종료를 앞두고 30초 만에 푼 마지막 2문제는 제가 어릴 적, 가기 싫어한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에 필요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모든 배움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내공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 취업하는 것만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거쳐 한 도시만을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보고 못한 수많은 도시, 나라 그리고 우주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가야할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할지, 어떻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행복하게 나아갈지는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우물에 있다면, 얼른 빠져나와 넓은 세상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유○○



고등학교 또래 친구들은 졸업 후 하나 둘,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주변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좌절을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문장을 좌우명으로 삼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 면접 잘 보는 방법 등 구직을 위한 정보성 글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좌절을 겪었을 때 어떻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길 소원합니다.

🔍 “엄마, 아빠! 저 자퇴하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장통으로 잔병치레가 많고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저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통학 거리는 짧지만 적성에는 맞지 않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 후 점차 건강이 회복되면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날이 반복되었고, 졸업식 날까지 자책만 하다가 졸업장을 받아 드는 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하고 졸업하기 싫었던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과 ‘광고’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공부할 수 있는 마케팅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간의 전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학하고자 했던 마케팅 특성화고를 직접 방문하여 전학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 드렸으나, 한 명의 학생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전학을 요청한다며 특성화고 간의 전학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는 절망적인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같은 학년으로 전학 갈 수 없다면, 다시 처음부터 1학년을 다니면 되지!’ 그렇게 기존에 다니던 특성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마케팅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목표를 향해 달릴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저와는 달리 부모님께서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하셨습니다. ‘자퇴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꼬리표가 제게 따라 붙어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마음에 비수로 꽂히셨던 것입니다.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미어지는 마음을 감내하고 계셨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감을 지녀야 하는 때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복학생, 선입견을 깨고 전교 1등·전국 1등이 되다

이듬해 3월 2일. 저는 18살의 나이로 마케팅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자퇴생’, ‘복학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저에게 따갑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제 또래보다 1년 돌아서 가는 길인 만큼 노력하는 데에 더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서관에 들러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고, 등·하교하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버스 안에서 교과 내용을 요약한 요약집을 읽는 등, 제가 내린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약 40개에 육박하는 교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지게 된 ‘마케팅 전문가’라는 꿈을

‘전국상업경진대회 포트폴리오 부문’에 출전하여 프레젠테이션하였고, 전국 1등상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며 흘리셨던 눈물은 점차 기쁨의 눈물로 변해 갔고, 선생님들께서도 복학생의 선입견을 깬 모범 사례라며 학년 대표 모범학생으로 추천해 주시면서 저는 ‘졸업이나 하면 다행인 복학생’에서 ‘부모님과 학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99도의 물을 끓게 하는 것은 마지막 1도이다 - 김연아 자서전 中

저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곳에 취업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행복하게 끝맺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기에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을 목표로 수없이 많은 원서를 썼지만 늘 필기시험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곤 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느 공기업에도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채 졸업장을 받아 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과 스스로를 비교하게 될 때면 부모님의 눈물로 값지게 얻어낸 좌우명을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부단히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낙방할 것이 뻔하더라도 계속해서 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필기전형에서 20번 가까이 탈락하는 쓴 맛을 봐야 했지만 떨어지는 것이 무섭다고 서류 접수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기전형에 합격한 이후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곤 하였는데, 서류와 면접만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기관에는 무조건 서류를 접수하여 면접 경험을 쌓음으로써 면접장에서 떨지 않고 생각을 말하는 땃집을 길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의 공기업 인턴을 수료하였고, 다시 공기업 정규직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필기시험이 있던 날 아침이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날따라 온갖 비관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떨어지겠지. 그냥 시험 치지 말까?’ 그러나 시험을 치르고 떨어지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지만 주어진 기회를 노력해 보지도 않고 차버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내 마음을 다잡고 필기시험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동안 치렀던 모든 필기시험 중에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하였고 그토록 기다려 온 면접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들었습니다.

🔍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하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유○○입니다.”

그렇게 2017년 6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졸직급인 6급(을)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3년이 지난 현재는 대졸직급인 6급(갑)으로 근속 승진하여 근무 중입니다.

많은 고졸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차별받지는 않는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수십년 전부터 공단에 고졸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신 선배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졸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그저 주어진 일만을 하기보다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을 인정으로 변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길러온 강점인 마케팅·홍보 스킬을 건강보험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에 2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내 SNS 서포터즈’에 자원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의 장점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SNS로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은 물론, 회사로부터 ‘홍보, 마케팅 하면 유주임이지!’라며 학력과 관계 없이 인정받는 사원으로 커리어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졸 출신 사원으로서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제는 저희 회사에 대체 불가능한 마케팅 인재로 거듭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통해 마케팅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그 꿈에 다가갈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느리더라도 계속 나아가세요!” 이 속도로 가면 너무 늦는 건 아닐지, 앞서 나가는 다른 친구들의 방향을 쫓아야 하는 건 아닐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또래들의 속력에 맞추는 데 급급해 방향을 뒷전으로 했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여러분께 수기를 들려 드리는 귀중한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짐작하셨겠지만, 인생에 늘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나쁜 일 또한 결국 끝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굴곡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끈기 있게 버텨낸 사람만이 값진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한 방향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열정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 나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 문○○



🔍 질문이 반이다!

분명 평소와 다른 게 없는 아침이었지만 2019년 1월 28일 아침 공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갖추어 입고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당당하게 빛나는 LX배지를 달았습니다. 20살 가까머리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졸 채용으로 입사하고 군대도 다녀왔으니 딱 6년 만에 저는 고졸 보조직에서 7급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7급 임명장을 받는 순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 나에게 하는 질문!

등줄기가 어느새 땀으로 끈적끈적해집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토목회사에 들어가 북수원IC 고속도로 확장공사현장에서 두달 가량 측량보조를 했습니다. 돌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순간, 포크레인 앞부분 큰 삽에 탑승해서 절벽부분에 GPS점을 표시하며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실수하고 혼나고 무시 당하고 괴로운 순간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년간 버스 운전을 업으로 하시면서 세 남매에게 공부가 아니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아버지께서 하루는 한잔 술에 기대어 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된다. 아빠는 솔직히 너가 안정적인 직장, 좋은 환경에서 근무했으면 좋겠지만...” 19살 아들의 땀범벅 작업복과 흙먼지 가득한 작업화를 못내 가슴 아파하셨던 아버지의 촉촉해진 눈가를 보면서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그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했을까?”, “아니라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적절한 순간 적절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다!

초·중학교 시절 내성적인 성격에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지만 공부는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누나의 조언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도시디자인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나마 재미있었던 시간은 측량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측량을 하고 장비를 조작하는 시간이 좋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측량업무를 하는 토목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저의 첫 사회생활은 2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남의 돈을 버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좌절을 하고 지쳐 있던 순간 측량담당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아. 너는 측량업무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일반 토목회사가 아니고 오랜 전통을 가진 지적측량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공기업 있는데 한 번 도전해 보라.”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측량업무를 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기업이라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입사해야겠다는 생각에 한걸음에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답변은 간단명료하셨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서 앞드려 자던 저는 어느새 맨 앞자리에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필기를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평소 잠이 많은 편이었지만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어도 졸리지 않았고 공부가 재미

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시험에서 전교 1등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입사할 수 있는 측량기능사 자격증뿐만 아니
라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질문이 나의 삶을 바꾸다!

변화된 모습과 우수한 성적으로 저는 무난하게 학교장 추천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원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에 MOU가 체결되어
고졸 채용의 기회가 열려 있었고 저는 그 기회를 잡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합격통지를 받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 영등포동작지사에 발령을 받았습
니다. 공사는 고졸 보조직으로 4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7급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고졸이었지만 업무나 보수에도 큰 차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고등학교 때 측량실습을 해본 터라 다른 신규직원들에 비해 적응
도 빨랐고 실력도 인정받으면서 많은 팀에서 서로 팀원으로 저를 데려가고자 요청을 하
셨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저는 지적측량 업무 이외에도 GPS업무, 국공유지 실태조사,
공간정보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발휘하면서 한층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
다. 감사하게도 업무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영등포구청장상과 구로구청장상, 금천구
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취업 후진학’ 이 가능한 고졸 채용의 장점을
살려 회사에서 MOU를 체결한 사이버대학에 입학하여 부동산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
니다. 조기졸업을 하기 위해 계절학기를 수업을 듣고 있으며, 열심히 실력을 갖추어 회사
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교육기관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딜 가시든 ‘본인은 최고의 운전기사이고 우리 아들은 최고의 측량기
사’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지금도 “아들!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돼!”
여기까지는 그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취업한 후 그 뒤에 한마디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정말 다 힘들다!” 하시며 크게 웃으시며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십니다.



“질문은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도 고졸이라는 타이틀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공사에는 저처럼 고졸 채용 직원들이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많은 기관에서도 차별 없이 지속적으로 고졸 채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검증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졸 채용이라는 타이틀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졸, 대졸이라는 타이틀은 종이에 적는 최종학력일 뿐이지 인생의 성적표는 아닙니다.

어떤 문을 열 것인지, 문을 열지 닫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을 하고 7년을 우리 공사에서 생활하면서 성공은 학력에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을 못 간 걸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장생활은 본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졸 채용을 준비하면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저 또한 선배로서 지금처럼 당당하게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구하기 위해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절반 이상은 이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



인사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4년 정도 되어 가는데 아직도 취업했을 당시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지금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계기부터 다사다난했던 학창시절의 쓴맛, 단맛을 느꼈던 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기를 읽어볼 고졸 취업 준비생과 재학생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닮고 싶었던 나

넓은 바다와 큰 선박을 자주 볼 수 있는 거제도에서는 조선·해양이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의 부모님과 거제 시민들의 대부분은 조선업에 종사하시는데, 회색의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다가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위에서 “나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저런 곳에서 일 안 해야지”라는 참 가슴 아픈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조선업을 다니시며 두 아이를 거뜬히 키워 주신 부모님을 보며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직장에서 대졸과 똑같이 일 잘할 수 있고, 대학교 졸업을 위해 드는 비용을 아껴서 자기계발에 투자하겠다는 마음으로 거제 마이스터고로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누구나 좌절은 있다.

거제마이스터고로 진학을 결정하면서 1학년이 끝날 때쯤 한 기업에 상위 몇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서를 통해 입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점 항목이 되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공부해서 취득하고, 학업에도 열중하여 상위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추천서를 받게 되었고 필기시험을 치고 면접시험을 봤지만 18년 인생 처음으로 탈락이라는 쓴맛을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나의 목표로 삼았던 기업에 떨어졌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곤 몇 개월 동안 멍하니 지냈던 첫 번째 좌절이 있었습니다. 입사시험에 단번에 붙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좌절하지 말고 다음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S기업에 떨어진 이후로는 더 이상의 추천서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기에 3학년 때 있을 기업들의 공채에 대비하여 2학년 때 준비를 잘해야 했습니다.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기, 실기시험 준비를 씀 없이 했습니다. 또 공채 같은 경우 서류심사에서 떨어져 필기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많았기에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쓰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나고 드디어 3학년이 되었더니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뽑는 채용공고문이 내려왔습니다. 회사에 지원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지원자를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기업에 아는 게 많다는 건 관심이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소서를 쓰고 전공 공부를 하면서 9개월간 지원한 기업만 15곳 이상이었습니다.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필기시험을 응시하러 가는데, 대부분 시험 장소가 서울이다 보니 거제에서 왕복 비용만 10만원에 + 밥값 + 전날 숙박비까지 하면 1곳에 지원할 때마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다 보니 돈이 없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시험을 치곤 했는데, 기업에 합격하면 괜찮은데 매번 떨어지기만 하니

너무 눈치도 보이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9개월을 끝으로 포기를 할까 싶었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시험을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김해의 한 중소기업에 들어가 입사 지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작업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와 제일 먼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지원하고 씻고 자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3개월간 일하고 나니 충분한 돈이 마련이 되었고 정말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해 보고 ‘안 되면 군대 먼저 갔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였습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

지금 생각해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고졸 채용, 지역인재 채용 3가지의 종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겪었습니다.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고졸 예정자를 뽑는 전형에서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면접을 봤는데, 6 : 5 면접관 6명, 지원자 5명으로 보는 방식이었는데 같은 학교에서 온 친구 3명이 같은 조였습니다. 저보다 스펙도 좋고 성적도 좋은 친구들이지만 블라인드 면접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당시 손을 번쩍 들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노래랑 연관이 있어 노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니 “들은 거로 할 테니 면접 종료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대답을 듣고 ‘아 이번에도 틀렸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수많은 도전 끝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몇 번의 면접 심사 중 저 자신을 제일 솔직하고 꾸밈없이 보여준 게 합격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2015년 12월의 마지막 도전으로, 처음 인생의 단맛을 느꼈습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멋지게!

입사 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대단하다,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사할 생각을 했냐?”, “우리 애들도 너처럼 빨리 취업시키고 싶다.”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고졸이라고 해서 낮춰보는 시선은 없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처음 고졸 직원을 받다 보니 관심이 많았고 가장 우려했던 대졸 사원과의 차별대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남자라

면 갔다 와야 하는 ‘군대’, 취업을 생각하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뒤에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 사회에서 저를 2년간 기다려 준 공공기관이 정말 고맙습니다. 남들은 전역 전 취업 준비한다고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고졸 채용 덕분에 걱정 없이 전역하고 다시 복직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사에서 주임 중 가장 나이는 어리지만 가장 선배인 저는 대졸 사원 후배들과 똑같이 일을 잘하고 있고 서로 모르는 부분은 상호 협력하여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큰 장점이 있다면 고졸이라고 해서 승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고졸 구직자분들 누구나 공단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한다면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팀장, 부장, 지사장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차별 없는 모습에 한 번 더 공공기관에 감사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후배분에게

지금까지 취업 이야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또래 친구보다 자격증이 많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성적이 상위 10%, 토익 600~700점 이런 점수는 꿈도 못 꾸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공채에 몇 번 도전하고 실패를 하자 포기하는 것을 저는 끝까지 달렸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기, 그 한 가지로 승부를 보았고 지금은 공단의 사원증을 매고 출퇴근하는 멋진 직장인이 되어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라는 에디슨의 말처럼.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은 원하는 직장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신다면 본인 이름이 적힌 직원 명함을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고졸 구직자분들 응원합니다!

성공적인 선취업 후진학

한국주택금융공사 | 김○○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좁았던 고졸 전형의 관문을 뚫고 듣는 축하 메시지의 황홀감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 입사지원부터 최종 면접까지의 힘든 과정을 다시 거치라고 하면 절대 못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에 빛나고 값진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사 4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입사 준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복기해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 고졸 취업,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각종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직접 찾는 대졸자들과는 다르게,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직접 고졸 채용공고를 찾아주는 취업 담당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취업처를 찾아보는 것까지 학교의 몫이라면, 공고를 들여다보고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 고르는 건 학생의 몫입니다. 어떤 회사의 공고가 언제 뜨고 언제 채용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지원할 기업의 규모, 연봉 정도를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금융에 관심이 많았기에 학교 프로그램인 ‘나는 펀드매니저’ 등에 참여하였고, 이를 특기로 하여 입사지원서나 면접에서도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직업관을 가졌기에 쏟아지는 공고들 중 평소 관심을 가지던 금융권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의 입사지원서와 면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간절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의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찾으며 지원한 회사에 대해 하나둘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가까운 지사 세 곳에 방문해 일하게 될 장소가 어떤지 살펴보기도 하고, 현직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공사의 고객을 찾아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를 알아가기도 했습니다. 지사 방문과 현직자, 고객 인터뷰는 무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의지를 더 굳건하게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과는 다르게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오로지 끈기와 의지 싸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14일 동안 최소 10시간씩 매일 NCS 문제집과 전공책들을 펴놓고 영당이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 하는 허무맹랑한 자기암시가 의지의 부스터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도서관에서 제목도 모르는 경제학 전공서들을 빌려다 읽었습니다. 전공시험의 범위가 넓은 만큼 저 또한 넓은 범위를 모두 섭렵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20을 공부했기에 출제된 80을 모두 맞춘 것이리라 믿고 있습니다.

입사를 준비하며 알게 된 것과 실제 회사생활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졸 구직자들에게는 어린 나이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갖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입사 동기들과의 학력 차이로 ‘전문성’에 관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직원 연수 때 동기들과 소통하며 실무를 배움에 있어서는 모두가 ‘0’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열심히 일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업무든 곧잘 적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학구열 같은 인성적인 요소를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졸자에게 더 필요한 제도들

회사의 신입연수 기간과 고등학교의 졸업고사 기간이 겹쳐 학교 성적을 포기해야 하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신입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연수이니만큼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2년 반 동안 쌓아온 성적을 마음으로 놓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치러야 하는 시험이니만큼 현장 실습생들이 오랜만에 학교에 왔을 때, 저는 BIFC의 본사에서 금요일에 있을 연수평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수업이 끝난 직후 쉬는 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볼 시험 성적이 학교 성적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는 단순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들의 해결책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확장해 고졸 예정자의 학교 성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의 불가피한 근무나 연수로 고등학교 성적을 보장받지 못한 고졸 예정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의 수습직원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 영어와 같이 상대평가로 점수를 매겨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공통과목들은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만큼 점수를 받는 절대평가 방식의 전공과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3학년 때 듣고 있던 ‘보험일반’의 과목의 교육과정과 ‘주택연금 보증’ 실무가 어느 정도 일치해 대체해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는 만큼 받을 테니 학년 평균 점수로 산정하거나 전 시험의 점수를 끌어오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취업을 했으니 성적이 상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취업 후진학 제도로 대학을 갈 예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년이라는 재직 생활을 인정받아 ‘재직자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성적을 비롯한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원만한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졸자에서 대졸자로

저는 운 좋게 고졸로 입사했다고 해서 최종 학력도 ‘고졸’에 만족하지 않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후진학 제도는 높은 연봉 산정을 위해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보다 전문성을 갖고 그것을 공인받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실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사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아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으니 회사와 직원 모두 윈윈(win-win)이

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후진학 제도는 가장 완벽한 ‘일과 학습의 병행’의 표본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힘에 기대어 무작정 일과 학습을 같이 한다고 업무 능력이 갑자기 향상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배운 것을 업무에 잘 응용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의 업무와 후진학 가능 학과들을 대조한 결과 ‘부동산학과’가 가장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에서의 배움이 공사의 업무에 얼마나 도움될지를 잘 고려해 학과와 과목을 선택할 때 회사생활과 동시에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대학보다 직장에 먼저 다니는 것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진학을 선택한 또래 친구들이 캠퍼스 생활, 동아리 활동 등으로 보내는 대학생활의 묘미를 즐기지 못하니 가보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쉬움을 사내 동아리나 입사 동기들과의 친목 교류로 풀고자 합니다. 이 길을 선택했기에 뒤따르는 이면들까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후학습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친구들과 마냥 어울려 공부하고 놀던 고등학교 생활의 끝이 실감납니다. 이는 곧 주택금융공사에서의 생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저의 사무 공간과 매일 반겨주시는 선배님들이 아직은 낯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삶을 개척하고 정착해 나갈 제 자신을 믿기에 내일도 힘차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의 임원 면접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간절함이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업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10년 뒤, 30년 뒤에도 고객을 생각하며 주택금융을 책임지고 있을 저의 모습을 그리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씨앗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정○○



🔍 '하나의 씨앗'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많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의 취업여정을 '하나의 씨앗'에 빗대어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누구나 처음엔 작고 여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속이 짝 찬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씨앗이 꽃을 피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노력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저의 취업여정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소박하지만 진솔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씨앗 심기'

저는 제 꿈을 찾아 거리가 먼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입학 초기에는 낯선 친구들과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모두 5명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채로 모든 것을 맞춰가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활방식도 모르고 공동생활을 시작하니 청소부터 개인물품 관리 문제까지 사소한 것부터 잦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부분별 청소당번을 정하고 개인 생활규칙을 공유하는 등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 우리 방만의 규범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어 '씨앗 심기'의 과정이 시작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움트는 새싹'

고등학교 재학 중 관심 분야인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림기능사 필기시험은 무척이나 어려워 세 번의 도전 끝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종자기능사, 조경기능사, 오토카드 2급 등을 연달아서 취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학기 과정을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컴퓨터활용능력 2급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분야를 체험하고 싶어서 산림 관련 봉사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숲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공동체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서 캠프 지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분야에 대한 경험은 저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로 '움트는 새싹'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 '돋아나는 잎'

돌이켜보니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취업준비생으로 보내는 동안 적지 않은 사회경험을 했습니다. 웨딩홀 서빙,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 비교적 단순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공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입사지원까지 실패도 많이 겪었습니다. 서류전형부터 불합격하기도 하고 마지막 면접에서 불합격하기도 하는 등 수 많은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화가 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도 값진 경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저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더욱 완성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나 스스로에 대한 장점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취업 공고를 확인하던 중 2020년 상반기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꼭 도전해 보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 가며 필기와 면접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긴장되는 면접시험까지 자신감을 갖고 무사히 치르고 난 후 최종통보까지 마음을 즐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저에게도 최종합격이라는 값진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푸르게 ‘돋아나는 잎’이 보이는 과정이었습니다.

🔍 '피어나는 꽃'

큰 꿈을 품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입사한 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껏 경험했던 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낮을 가리는 편인 저로서는 조직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 팀원들 개개인과 대면하고 개별적으로 취합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은 서투르고 가끔 실수도 있지만 막내인 저를 팀원들 모두 다독여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다행히 잘 적응하는 중입니다. 요즘은 팀원들과의 티타임이 너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제 성향을 더욱 살려서 행복한 회사생활을 채워 가며 ‘피어나는 꽃’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 '새로운 씨앗'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기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고졸자를 위한 전형이 별도로 있어 원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지금은 현재에 충실한 신입직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 적절한 때가 되면 제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저는 아직 도전 중이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입니다. 저의 생활신조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V

지역인재 채용



- 1 지역 토박이에서 지역 전문인재로!
- 2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이야기
- 3 나의 공기업 입사수기,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대한 제언
- 4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 5 한국남부발전 입사를 향한 걸음걸음
- 6 지역인재 채용,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

지역 토박이에서 지역 전문인재로!

창업진흥원 | 유○○



🔍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후배분들에게

‘귀하는 이번 채용과정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취업준비생이라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문구입니다.

학부시절 필기시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때엔 ‘지역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나만의 역량을 가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며 막연한 두려움이 앞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 정량적인 스펙쌓기에 전전긍긍하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대 제도는 취업이라는 어둡고 막막한 길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또한 스펙을 넘어 지역인재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도 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합격수기가 취업의 길에서 알찬 열매를 맺고 있을 후배분들에게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숨은 의미는 지역대학이라는 선입견에 가려져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 후배들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입사에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역대학에서도 충분히 학술적·문화적 전문을 넓힐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합니다.

저의 경우, 지역대학의 무역학과에 재학하면서 지역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소위 스펙이라는 학점, 공모전, 토익점수가 아닌 나만의 스토리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 전공과 맞닿은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키워드로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무역양성단 6기 대전지역 마케터로 활동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였고, 실제 베트남 수출전시회에서 바이어 계약 성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내의 경험을 길렀습니다.

또한 미국 TED에서 자발적으로 연출권을 얻어 지역대학과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TEDx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KBS PD, 4대 사막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한국인 등 골지의 연사 초대부터 지역 기업들의 물품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우대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및 NCS 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앞서 말한 계량화된 스펙보다는 기관 맞춤형 인재를 찾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주제로 쌓은 저만의 스토리는 창업진흥원 입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이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지역인재를 넘어 지역 전문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자신만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의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역 내 채용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입사방안

저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중 가장 좋았던 것을 뽑자면 단연 지역까지 확대 되는 채용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공동채용설명회부터 학교로 찾아오는 채용설명회가 활발해지며 지역에서도 다양한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채용설명회에서 직접 지역인재로 입사한 선배님들을 만나며 생생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각 기관에서 소개하는 인재상과 업무, 지역인재 가산점 정보를 얻으며 나의 성향과 맞닿고 나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을 찾으며 주무부처가 같거나 기관의 성격이 비슷한 곳으로 그룹화하였습니다.

그 후 공공기관 입사의 꽃인 필기시험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먼저 전문가를 활용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대학에서도 유명강사를 초빙한 NCS 기반 필기시험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이 특강에 적극 참여하며 NCS 기반의 필기시험 기초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공공기관 필기스터디를 모집하여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점차 상향되는 문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NCS 유형과 유사한 PSAT*으로 공부하며 실력을 향상시켰으며, 많은 문제를 풀기보단 단권화를 통해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매일 신문스크랩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다방면의 시사 상식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PSAT: '공직적격성테스트'로, 현재 5급 공무원 1차 시험으로 활용됨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지역의 채용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취업준비 그 자체로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과거 지역 취업준비생으로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께도 지역 내 다양한 취업정보를 적극 활용하길 권해 드립니다. 채용설명회와 지역대학을 통해 취득하는 생생한 채용정보와 스터디를 통한 실력 향상은 공공기관 입사의 문을 조금 더 빨리 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학부생활의 대내외 경험과 첫 직장이었던 지역 산하기관에서의 지역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조각들을 모아 저의 마지막 정착지인 창업진흥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하는 다양한 업무 중에서 지역 토박이인 저의 강점을 살려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 자활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 사회적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뜻깊은 업무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로서 지역 내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은 취업 이상의 또다른 보람으로 찾아옵니다. 지역인재로 입사한 동기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곳곳의 맛집을 함께하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며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는 지역인재 정책이 젊은 인력을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며, 제가 그 정책에 함께한다는 작은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많은 곳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정하여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쌓은 다양한 경험과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훗날 완생으로서 더욱 도약하시길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이야기

국민연금공단 | 김○○



🔍 저는 경단녀였습니다

82년생. 올해로 39세, 어린 입사 동기들과는 넉넉히 10살 이상도 차이나는 신규직원으로 2014년 7월 공단에 입사했습니다.

결혼 후 2007년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지방 출장이 잦았던 여성 인권보호단체 업무 특성 때문에 첫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별이가 변변치 않던 시절, 아기들을 맡기고 일터로 향할 수도 있었지만 전문직으로서 연봉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일이 아니라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되려 돈을 버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인들의 말에 동의가 되어 5년 여 동안 아이 양육에 집중하였습니다.

저까지 직장을 그만둔 이후 생활이 어려워, 전주 근교 완주군에 거주하며 차상위계층 신청서를 작성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낯선 면사무소 사회복지계. 대학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하겠다던 제가 저소득 복지대상인 차상위계층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아이들 먹거리, 교육 기회 등 도움을 받아 고맙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직접 취약계층 지원서비스를 경험했다고 할까요.(웃음)

2012년 1월 면사무소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할 시작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면사무소에서 복지도우미로 일할 사람들 구하는 전화였습니다.

면사무소 담당자는 차상위계층 대부분이 소득활동 중으로 복지도우미로 일할 사람이 없어, 저에게까지 연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온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1년 계약직인 복지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 복지도우미 업무는 행정도우미 일뿐 아니라, 직원들 간식 만들기, 계단 청소, 면장님실 청소, 직원들의 잡다한 심부름까지 닦치는 대로 여러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직 직원으로서의 서러움, 차상위계층이라는 경제적 상황이 다 공개된 일터에서의 직장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때론 몸보다 마음이 고됐던 복지도우미로서의 1년이 다음 지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처럼 마음을 다지고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이 일 저 일로 분주하던 저를 유심히 보시던 부면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아직 젊고, 여기 이렇게 있긴 아까운 것 같아. 공무원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시험 한번 보지 그래.”

처음에는 좋게 봐주시는 칭찬이려니 하고 지나쳤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더 나이가 들어 후회하기 전에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시간적 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과정을 거쳐 합격자가 된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점차 결심이 서기 시작했고, 1년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힘들지만 공부를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지행정

보조를 통해 새롭게 눈뜨게 된 공공분야 사회복지 실천의 장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편의 대학원 휴학 시기와 맞물려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며,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기간적인 제약,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으로, 1년 6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휴일도 없이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9급 사회복지직으로 응시한 지방직 시험에 연거푸 떨어졌습니다. 기초연급 제도 시행으로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거 임용한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 기회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의 쓴맛에 맞닿은 새로운 기회의 단맛을 보다

짧은 수험기간, 목표를 향해 지나치게 내달렸는지 지칠 대로 지쳐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된 국민연금공단 공채 공고. 저는 공무원 시험 낙방 후 이어진 취업 시도에서 또한 번번이 불합격 통지를 받아, 자신감이 바닥까지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벽이 너무나 높아 보여 더 이상 무엇인가를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용기를 준 건 남편이었는데, 되든 안 되든 서류만 넣어 보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설마설마하며 지원한 공단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정성 들여 작성하였지만 경단녀에 지방대 출신으로 늘 서류부터 막혔던 재취업의 문이 한 번에 열린 것입니다. 지역인재 할당 채용으로 인한 혜택이 분명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것이 오히려 기회의 문이 된 것입니다.

서류통과 후 단시간 필기시험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통과하게 되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위해 공부하던 과목과 공단 필기시험 과목이 일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때가 되어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이 마치 그때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면접.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여러모로 부족했던 저는 면접스터디도 하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복장도 단정히 준비하여 상경했습니다. (지방이전 전이었습니다.)

면접이 있던 날, 점심시간이었는지 국민연금 사원증을 매고 다니던 직원들이 그날따라 유독 부러웠습니다.

드디어 면접 시간.

“저를 뽑아주시면, 국민연금에서 참나무같이 여러모로 쓸모있는 참직원이 되겠습니다.”

준비했던 자기소개와 솔직한 마음을 담은 답변들, 면접 또한 최선을 다하고 전주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합격 문자가 저에게도 왔습니다. 눈에 한가득 눈물을 머금고 문자를 보고 또 보며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입내역서, 지나온 길이 되다

입사 후 6년 차가 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름 쓰인 이름표 뒤에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전공했던 사회복지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곳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공단이 참 고맙습니다. 저를 고용해 주었고, 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면사무소 등 이전 직장보다 휴가도, 급여도 많습니다. (웃음)

좋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정책은 저에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한 행운의 기회였습니다. 서류심사 단계부터 거절되어 시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아픔이 한 번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공기업 입사수기,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대한 제언

한국수자원공사 | 장○○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에는 학벌주의가 만연했고, ‘무조건 서울로 대학을 가야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유능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주위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과 성적 등 다양한 여건의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집 근처에 위치한 지방 대학교로 입학하면서 학벌에 대한 자격 지심은 4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 학벌이 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고,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여기서 잘한다고 한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긴 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한 오해였고, 정부에서 지역인재채용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기회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저에게도 크고 작은 기회가 찾아와서 희망을 가지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지방대학교 학생으로서 취업준비 애로사항

모두가 공감하는 3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턴 기회의 부재입니다. 지방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사의 수도 적으며,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 인턴을 지원한다고 한들 주거지와 근무지가 너무 먼 지방대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서류전형에서 인턴경험이 있는 실무형 대학생을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인턴경험이 없었던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취업컨설팅 부재입니다. 시에서 지원한다는 취업카페, 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가 여러 차례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컨설턴트마다의 개인차로 상담내용이 전문성보다는 주관적 조언에 국한되는 사례가 많이 아쉬웠기에 저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업체에 20만원 상당의 유료컨설팅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필기시험, 면접 시 들어가는 교통비, 숙박비입니다. 보통 필기시험은 9시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지방대생으로서 반드시 그 전날 숙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기시험 시즌에는 매주 주말마다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시즌 때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지역인재채용이 나에게 미친 영향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저에게 굉장한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연고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 '지방대생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봐 주겠다'라는 것도 상당한 심적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제 연고지 근처의 공공기관에 입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3) 나는 어떻게 해서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는가?

평소의 신념에 제가 가진 역량을 국가를 위해 발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취준생들 사이에서 소위 '신의 직장', '미친 경쟁률' 등으로 불릴 만큼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입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고민의 결과는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6개월 만에 공기업 입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 서류전형

공기업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직무 관련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블라인드 제도란, 학벌, 학점 등 편견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직무능력만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NCS 기반 채용제도는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각각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평가 방식 체계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동안에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나와 잘 맞는 회사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깊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만 붙어라’라는 식의 묻지마 지원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는데, 문제는 입사 후 직무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본인의 적성과 일치하는 곳에 입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직무적합에 대한 바른 판단으로 지금 회사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일들에 대한 비전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 필기전형

필기전형을 준비하기에 앞서 본인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꼭 하나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점을 주는 공기업이 많고, 특히 이공계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필기 문제 유형이 공기업 전공 필기시험에 나오는 유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기사 자격증 보유로 오랜 시간 공기업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전공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NCS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3~4시간씩 매일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더 극적인 기대효과를 원한다면 NCS 스테디를 구해서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기전형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노력한 만큼 나오는 가장 정직한 평가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공기업은 불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점수를 명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시험점수가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면접전형

면접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이 없다’, ‘솔직한 게 최고다’입니다. 제 대학 동기와 함께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성격과 가치관이 매우 다른 친구였고, 같은 면접관들께 면접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둘 다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면접관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둘 중 한 명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된 후 친구에게 어떻게 면접을 보았냐고 물어보니 여태까지 본 면접 중에 가장

‘나’ 다운 솔직함으로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솔직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해서 합격을 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단점을 감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단점을 파악,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장점을 어떻게 회사에서 업무적 성과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대한 제언

지역인재 채용제도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것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역차별 의견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권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고지 근처로 취직을 하길 바라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이들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도권 학생들에게도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서도 분명 특정 공공기관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는 학생들도 있기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과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를 꺼려 하는 수도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부디 이러한 제도 논쟁이 제거되고 다수가 균형감 있게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기관 채용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 이○○



1. 자기소개 및 준비과정

1. 지잡대라는 비하

저는 전라남도 ○○○에 위치한 작은 국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립대학교라는 사실도, 이런 대학교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학교를 속세의 많은 사람들은 지잡대라고 비하를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겪은 학교에서의 삶은, 모두들 자기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도서관은 항상 만석이었고, 인정받고 조건 좋은 많은 회사는 학교 이름이 적힌 지원서를 휴지통으로 직행시킨다는 생각에 모두들 자격증과 공무원에 목을 매는 삶을 보고 겪으며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2. 대학을 나왔는데 토익이 없어?

저는 토익이 없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했고, 간판(전공)이라는 불리함이 있어 일반 기업에의 취업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토익은 무의미한 스펙이었습니다. 제게는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책상에 앉아 임용과 관련된 전공 책을 보는 것이 인생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3. 벼랑 끝에서 버티던 나

1년에 많아야 10명이 선발되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용감하게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같은 노력이면 더 아웃풋이 좋은 전문자격증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26살 봄, 회계 원리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 사업으로 벌었던 자금이 있었지만 이 수험 생활을 거치며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영원히 건강하시고 제가 기뻐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부모님이 노쇠하시고 몸이 편찮아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연민이라는 수험 생활에 가장 큰 마음속 적을 만드는 큰 실수를 하고, 아슬아슬하게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 거짓 블라인드에 속았던 기억들

29살 2차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험 생활 4년 동안 늘어난 실력과 사업 경험 등이 서류전형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행권에서 면접을 볼 기회를 가졌고, 여러 공단도 면접을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면접은 하나같이 블라인드를 강조했지만,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탈락이었습니다.

5. 체념하고 힘을 뺐더니 이뤄진 꿈들

서류전형에서부터 계속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금융 공기업에 취업하겠다는 결심으로 전문자격증을 준비하던 중, 서류에서 합/불이 아닌 여/부를 가린다는 말을 보고 용기를 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금융공기업 중 처음으로 입사지원을 했고, 처음으로 온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였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될 대로 되라는 마인드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회사이고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을 낮추려 노력하며 모든 채용단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지나친 힘이 들어 가면 오히려 독이 되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와 같은 모습을 하고 힘들어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편하게 현재에 임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지금의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의 잘못이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몸에 가득 찬 긴장을 털어내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이겨내셔서 적어도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는 지금보다 살기 좋고 모두가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II. 블라인드채용(공정성) 및 시험수기

1. 서류전형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채용공고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했고 실제 경험을 살려 구체적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문제 역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요를 짰 후, 논술문의 구조를 만들어 작성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많은 기업들의 문항이 유사하여 복사 및 붙여넣기를 통해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취준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고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박리다매 방식의 복사 및 붙여넣기가 아닌, 기업 하나하나의 문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변에 타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기금은 물론이고 이전에 지원했던 모든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2일 이상을 고민하고 개요를 만들어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소중하기에 저를 소개하는 글은 소중하게 써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 필기시험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었고 세무사는 2차 시험을 막 끝낸 시기였기에 전공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필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일반전형 필기시험은 허들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객관식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논술시험 결과가 엉망이라면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많은 시간을 논술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실제 논술시험은 평소 대학교 전공 중 하나였던 사회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제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현재 사회에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논술은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평소 뉴스와 신문에 관심을 갖는다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임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과정

신용보증기금 면접에서 블라인드의 교과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접이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되고, 수험생간의 정보 공유도 제한되었습니다. 수많은 면접 중에 이렇게 완벽한 블라인드는 처음이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한 방법은 저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 경험이었으며 심층면접에서 면접위원분들께서 실제 창업 경험이 있는지와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를 3개월치를 구해 경제적 시사 동향과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한 사고와 태도를 만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가장 큰 비밀은 최면 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대기하는 대기장에서 등받이에 등을 편하게 기대고 앉아서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긴장이 풀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앉아서 조그맣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했다면 좋겠습니다.

4. 비슷한 삶

합격을 하고 예비소집과 연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저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많은 동기들이, 너무도 비슷하고 유사한 아픔과 시련을 겪으며 이 자리에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지금의 자리에 대한 감사함으로 승화되었고,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따뜻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며 사회의 한 부분이 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1.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 못 하겠어요?

기억을 되살리며 급하게 작성한 이 글을 만약 읽게 된다면, 읽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지잡대, 3.6학점, 비(非)상경계, 자격증 없이 졸업한 저도, 공부하고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후광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채용이 이뤄지는 블라인드채용, 그리고 그동안 서류에서 걸려졌던 지역의 학생들을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 덕분에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저도 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더라고요.

2. 인연

사람들 간에 인연이 있듯,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도 나와의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신용보증기금을 쓰기 전까지 존재도 몰랐던 회사였고 우연히 보게 된 공고에 지원을 하고,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 듯 빠른 속도로 관계가 진전되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원하는 회사에서 불합격 통지가 왔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인연이 아니었고, 더 좋은 인연이 내게 다가와 내 인생에 꽃을 피우는 날이 곧 온다고 믿고 미래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 입사를 향한 걸음걸음

한국남부발전 | 위○○



🔍 첫 걸음. 취업스터디

“그냥 올라와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처음 공기업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나라고 그 말에 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람이 많고 학생들, 특히 취업 준비생이 많은 곳에서 취업 준비가 더 수월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나에게 주어진 여윌돈과 시간을 썬해 가며 심사숙고했었다. 서울은 고향도 아니고, 출신 대학이 있는 곳도 아닌 무연고 지역이었기에 소요되는 돈과 시간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마도 취업 성공 후 적어도 반년은 그 금액을 메꾸는 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 끝에 고향 집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취업 스터디’ 멤버를 구하는 일이었다. 우리 지역 멤버를 구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유명 취업 사이트 세 군데에 멤버 모집글을 장문으로 올려 두고, 인근 지역의 스터디 현황을 살펴보며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지 가늠하며 하루 하루를 보냈다. 며칠 후 첫 스터디원과 만날 수 있었다. 다행히 나이가 비슷하고 관심 기업과 공부 방향이 비슷해서 바로 스터디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스터디원이 6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공기업 취업이 바늘구멍이라는데, 이렇게 겨우 얻은 스터디 멤버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투성이였다. ‘우리끼리 서로 잘 도와줘야 돼. 우리 다 같이 원하는 기업이 들어가서 서로 취업터크 쏘자.’ 이 마음으로 푹푹 뭉쳐서 시작했다.

취업 준비생들의 본격적인 레이스의 시작. NCS, 한국사, 전공 등 원하는 기업에 맞춘 공부.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지원자들에게 원하는 바가 다르다. 이는 곧 NCS, 전공시험 그리고 면접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과서만 봤는데 만점 받았어요.’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로이다. 내가 입사한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자소서로 뽑는 인원의 30배수를 걸러낸 후 NCS, 전공, 한국사, 영어 과목을 시험 보게 된다. 요즘은 한국사를 필수로 보는 추세이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 물론 두루두루 잘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좋은 보기가 될 수 있다.

NCS는 IQ 테스트를 방불케 한다. 공부 방법을 많이 적고 싶지만 스스로 ‘NCS 하수’라고 생각하므로 생략하겠다. 많은 준비생이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주장하는 분야는 바로 ‘전공’이다. 방대한 범위 내에서 40~80문제 사이가 출제되는 전공시험은 어디서 얼마만큼의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기계전공이었기 때문에 기계기사 필기과목 중에 중요한 공식 등을 정리하고 기계기사 10개년을 반복해서 풀었다. 암기 과목도 생각보다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기출문제집도 반복을 거듭했다.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했어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사는 황금알이라고 생각한다. 본 시험에서 10문제가 출제된다면 8문제 정도는 다들 맞출 수 있도록 출제되고 2문제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기업 시험을 보고 1문제 차이, 아니 1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소양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일거양득의 황금알처럼 느껴질 것이다.

원하는 기업의 필기시험을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풀었다. IQ 테스트라고 말할 것처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생각보다 많은 오답에 놀랄 수 있지만 모의고사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극복해 보자.

3 세 번째 걸음. 필기시험

그러다보면 필기시험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을 것이다. 사전에 모집공고를 유심히 살펴 보고 시험시간과 시험문제 수를 파악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깜짝파티는 사람을 설레게 만들지만 시험장에서 설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의 1교시는 NCS. 80문제에 70분가량이었으므로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가야 했다. 난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답안지 마킹을 시작하면서 틀렸음을 알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제출했다. 쉬는 시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잘 본 것 같으며 재잘대는 동안 불안감이 엄습했다. 한껏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전공, 한국사, 영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한국사는 예상보다 더 어렵게 나왔다. 수험생들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지 매우 어려운 편이었다.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맞췄으면 그야말로 황금알이 되었을텐데. 영어는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대망의 전공. 사실 아직도 내가 전공에서 과락이 아니라 붙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점손의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시험 종료 후, NCS를 보고 재잘대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무리를 이룬 인파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길을 걸어 나간 걸 보면 모두 어려웠으리라. NCS도 실수가 많았는데 전공에 한국사까지 충격을 받고 나니 취업 준비를 최소 6개월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게 느껴졌다. 불안한 마음에 전공 기출문제집을 더 구입하고서는 공부하기가 싫어서 고이 집에 모셔왔다. 모두에게 어려웠는지 운 좋게 필기합격 통보를 받았다.

4 네 번째 걸음. 면접 준비 - 철저히 준비하라

면접을 준비한다는 것은 합격의 문턱에 서 있다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취업 스테디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방에 있었다. 이곳에서 원하는 기업의 면접 스테디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이었다. 또다시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왔다. 함께할 스테디원도 없이 오롯이 혼자 걸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밀려오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정보조사를 하면서 버텼다.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사보를 보기 시작했다. 언급되는 주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사를 찾고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을 이어나갔다. 화력발전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면접에서 '알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은 다 긁어모

았다. 다른 면접자들도 이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면접 스테디에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을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불안하다고 가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자료들을 체화시켜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으나 뒤돌아서면 잊어버렸다. 내가 이렇게나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나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두 번째 볼 때는 이해한 내용을 외워 보려 했다. 이제 20% 정도는 기억에 남았다. 다음에는 마치 앞에 사람이 있는 듯이 설명해 보았다. 버벅거렸다. 내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설명의 과정을 몇 번 더 이어나가자 버벅거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게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나가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예상 질문을 만들고 연습했다. 짧고 간결하게. 두괄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이어나갔다. 지루할 때는 엉뚱한 나만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미리 말해 두지만 이 해결방안을 면접 때 써먹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면접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추천한다.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이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걸음. 면접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면접장으로 갔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를 꺼내 들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마인드 컨트롤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첫 번째, PT면접.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준비한 해당 내용보다 자세한 부분들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유기적으로 엮어 본 것이 도움이 됐다. 주어진 자료에 내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사이사이 끼워넣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은 미래 전력회사에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심심할 때 준비했던 엉뚱한 대답이 빛을 발했다. 면접을 이끌어 나갈 때 유재석 같은 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많이 준비해야 한다. 질문은 면접관 마음이니까.

두 번째, 토론면접. 미리 시간을 정해 주고 자료를 나누어준다. 역시나 준비했던 내용보다 자세한 자료들이 실려 있었고 잠시 주춤했지만 마인드맵처럼 토론에 꺼낼 수 있는 자료들의 키워드와 맥락을 생각해서 적어 두었다. 준비성이 얼마나 철저한 회사인가.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알은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너무 떠들어대서 감점이 생겼을까 걱정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준비한 건 다 보여주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세 번째, 인성면접. 가장 인상에 남는 단계이다. 마지막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정말 인성에 대한 질문만 들었기 때문이다. 준비했던 방향은 포부 등과 같은 질문이어서 버벅거리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는 긴장이 풀려서 문을 쿵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다. 그때 들었던 절망감이란. 저지른 실수들 때문에 떨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면접결과를 기다렸다.

내가 면접위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준비하자. 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한 평범한 우리는 아는 만큼 자신감과 열정이 눈에 보인다. 주변의 사람 들만 봐도 그러한테 면접관이 보는 우리는 어떨까.

맺음말. 차분히 내딛는 한 걸음

사기업 최종면접을 본 경험이 있다. 최종면접에 4명이 올라왔고 2명이 선발되었다. 나는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대답도 잘 한 것 같았는데. 그 답은 내게서 찾을 수 있었다. 진실성. 그것이 내게 없었다. 가고 싶은 대기업이기는 했으나 이유를 물으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실패경험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진실성을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취업난이 심해져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에게서는 자신을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필요하고 이는 곧 진실성으로 연결된다. 그 길의 첫 걸음에 함께할 수 있길 소망해 본다.

지역인재 채용,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

한국자산관리공사 | 김○○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하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하게 된 김○○입니다. 오랜 시간 꿈에 그리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합격하게 된 순간에 감개무량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기분을 상기하며 수기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① 새내기 시절, 과거 지역적 소외

대학교에 입학한 2011년 당시에는 금융공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지인이나 선배들 중에 금융공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이나 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보도 거의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금융공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점으로 '집에서 너무 먼 곳'이라는 거부감이 들었고 준비한다고 한들 '가기 너무 어려운 곳'이라는 당시 분위기가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2014년 금융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배와 몇몇 동기들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고자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사실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한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냐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라는 것이 취업에 있어 페널티라고 생각하였고 '스펙'에서 다른 경쟁자들에게 뒤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 후, 주변 지인들의 합격 소식을 들었고 특히 친하게 지냈던 동기 중 한 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목표로 준비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합격을 하자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② 치열했던 준비 과정

금융공기업 입사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은 하루하루가 정말 치열하였습니다.

첫째로, 금융 시사상식을 쌓기 위해 경제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스티디그룹을 만들어 토의를 하였습니다.

둘째로, 필기전형 응시를 위하여 전공 과목(경영학, 회계, 재무관리 등)을 공부하였으며 셋째로, 면접전형 대비를 위하여 홈페이지와 기사, 각종 발간물 등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관련 사업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사업 관련 주제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사의 시각에서 ‘김○○’라는 사람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경험과 가치관을 다시금 상기하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노력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확실한 상황에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인데 위의 두 가지 제도가 저의 불확실성을 없애 주었습니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

2014년 금융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저와 제 주변, 학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지방대학’이라는 낙인 때문에, 또한 부담스러운 수도권 위주의 분포, 성공사례 미비 등등의 이유로 도전조차 하지 않던 분위기였으나 이전 이후에는,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불려일키고 연고지에서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근무 여건이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취업의 방향성 또한 확장되었습니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는 것이 필수 요건처럼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에서는 인력 유출이 심하고 수도권에만 사람이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응시한 경영직렬을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근 몇 년 간 필기전형 합격 점수는 지역과 비지역이 동일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중 지역인재는 지역인재 채용 전형에서 보장하는 최소 채용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인재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성과를 내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더하여 능력 위주의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할 경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④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성

제가 채용 과정에서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지역출신 학생이나, 수도권 거주 대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한 저의 친한 친구는 금융공기업 취업은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 다른 방향으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수도권으로 대학을 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차별이 되어 돌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니 충분히 수긍이 가는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능력으로 평가하는 제도 하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지방의 대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도전하는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었고, 또한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채용 관

런 데이터를 누적하고 있어 정보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지방의 대학생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기회의 평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역이전, 그리고 스펙으로 평가받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장기적 관점에서 ‘결과의 평등’을 위한 최소 할당치 의무 채용은 점차 줄이는 추세로 간다면 지역과 수도권 양쪽 모두 수궁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제도들을 통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 공공기관 이전 정책 등으로 지역인재들에게 걸림돌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방식으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저 또한 합격 순간의 기쁨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여 국가에, 사회에, 그리고 우리 공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V

장애인 채용



- 1 손발이 나쁘다면 머리가 고생하면 된다
- 2 장애채용의 날개를 달다!
- 3 자폐성장애도 완주하는 취업마라톤
- 4 청각장애인의 한국남부발전 입사 및 적응기
- 5 3無 장애인으로 공공기관 입사한 이야기
- 6 내가 말했지? 할 수 있다고!!
혼을 담은 청각장애인의 이야기

손발이 나쁘다면 머리가 고생하면 된다

한국법제연구원 | 선○○○



“저들에게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분명 1층에 있는 가게인데, 계단 몇 개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가질 못할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다. 장애가 없었다면, 나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겠지만 휠체어에 앉아 바라본 세상은 늘 멀리 있는, 그리고 넘지 못할 담벼락 위에 있는 곳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랬을까. 남들보다 뛰어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학사를 두 번, 석사를 두 번 하게 된 것은 그나마 그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공부였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기엔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까지 공부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서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이었다. 그렇게 학위는 늘어났지만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언제쯤에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설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 석사가 끝났을 무렵, 작은 잡지사예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취직을 했다.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 취재하러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취재 전 인터넷으로 사전조사를 하거나 투고 받은 글을 교정교열하는 업무를 맡았다. 성과도 좋았고 일도 재미있었지만, 회사는 이동의 어려움을 문제 삼아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그냥 멍하니 있을 수는 없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분당 200원 받는 자막작성 알바를 하기도 했고, 장당 만원 받는 영한번역 알바도 해보았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 이왕 번역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해서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통역 업무의 특성상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역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번역에만 집중했다. 방학마다 동기들이 통역실습을 나가는 동안 나는 책을 한 권씩 번역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함께 기계번역이 대세가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라 100만원쯤 하는 CAT 프로그램(Computer-assisted Translation)도 구매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법학 강의를 들었다. 사이버대학으로 학사편입을 하여 2, 3학년 전공과목을 중점으로 들었고 장애인 장학금 덕분에 학비도 절반밖에 들지 않았다. 사실 통번역대학원 같은 전문대학원의 경우 강의를 일주일 내내 들어야 하거나, 개인이 학습해야 할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절박함 때문이었는지 어떻게든 마무리는 지을 수 있었다.

막상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자 마음이 심란했다. “집 밖으로 나올 수는 있을까?” 스스로 되뇌었다. 대학원 동기들은 통번역사라는 전문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졸업식 며칠 후, 대학원 교수님께서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번역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문을 보내주셨다. 처음엔 그 월급에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최소 어머니라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 월급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장애인 제한 채용에 식품계열 전공자 우대까지 있는 통번역직은 처음 본다고 하시며 그곳은 너의 자리라고 하셨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부모님께서서는 중간에 그만두어도 좋으니 경험삼아 한 번 도전해 보자고 하셨다.

사실 시험은 쉬웠다. 학부에서 생명과학과 식품과학을 복수 전공했기에 늘 보던 내용이었고 전임자가 나간 지 10개월이나 되었기에 전공자 출신인 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은 나를 뽑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였다. 장애인 제한 채용이었지만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에 채용이 망설여졌고 담당 주무관이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뽑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식약처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내가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곳저곳을 고쳐주었다. 새로 배우는 업무들, 처음 겪는 조직생활, 실수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참 감사했다. 다만

통번역 업무에는 번역뿐 아니라 통역도 있어서 해외출장을 가야할 일이 있었는데 가지를 못하고 옆 사무실 다른 통번역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이 있는 후 다음 직장은 번역만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산에 있는 법원도서관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번역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자리가 올라왔다.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 보고 싶었다. 퇴근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3~4시간씩 국문과 영문 판결문을 비교하면서 읽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놀랍게도 필기에 합격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하였다. 몇 달을 정말 정신 없이 준비했었기에 상실감이 꽤 컸다.

오전에 불합격 소식을 듣고 오후에 번역 업무를 하다가 인용해야 할 법령이 있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였다. 무슨 조화였는지 무심코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눌렀는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법령번역직이 있었다. 그리고 원서 마감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었다.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다. 오전에 불합격 전화를 하더니 오후에 재도전 전화를 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 빨리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는지 참 신기했다고 하셨다.

법원도서관과 달리 한국법제연구원은 공공기관이라 번역 외에도 NCS 시험을 본다고 하였다. 다행히 번역시험은 판결문을 번역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기시험 전까지 며칠 동안 책 한 권을 다 볼 수 있었다. 실제 시험에서도 번역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NCS 시험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던 차에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고 했던 법원도서관과 달리 법제연구원은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때문인지 내가 가진 역량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4개의 학위, 이학사·목회학석사·통번역학석사·법학사 모두를 높게 쳐주었다. 실제로 번역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배경지식은 무엇보다도 큰 강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3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이 되었다. 장애인 제한 채용이 아닌 일반인 35 명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여 채용이 된 것이다. 오히려 같은 능력이었다면 내가 아

닌 건강한 다른 사람을 뽑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기뻐고 그간의 수고를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입사 후 우리 번역센터는 트라도스라는 CA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더 효율적인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감사하게도 대학원에 다닐 때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기에 신입이지만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이 되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았다. 누가 길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늘 개척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다. 내가 말버릇처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손발이 나쁘다면 머리가 고생을 하면 된다.”

장애채용의 날개를 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



간호학을 전공하고 신장투석실의 멋진 간호사였던 이○○은 지금은 뇌병변 3등급 장애인입니다.

2014년 5월 따뜻한 봄날, 친구 차에 동승을 하던 중 타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있었고 뇌출혈로 인한 왼쪽 편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간호사에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고로 건강과 직업과 행복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의료인이 아닌 장애인이 되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3년 동안 힘든 병원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고서 더욱 막막했습니다. 완치가 아닌 영구적인 장애로 남아 왼팔과 왼손의 기능은 없고 불안전한 보행으로 앞날을 계획하고 살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울증 정신질환도 생겨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사랑하는 간호사 직업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알바를 찾아 면접도 봤지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어느 곳에서도 저를 채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계약직 일자리를 하게 됐지만 계약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인의 소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준정부기관인 공기업 정규직 장애채용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장애인의 사회적인 복지와 혜택에 관심이 없었지만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장애인의 복지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우리나라가 특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평생 일도 못할까 막연했지만 장애채용의 기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제게 불행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라서 정상인보다 불편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노력과 포부는 정상인 못지않았던 저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만 했습니다. 서류지원에 합격했고 남은 필기시험과 면접 준비를 위해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쉬지 않고 공부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공부는 시간대를 나눠 새벽에 공부하고 저녁에는 공부한 것을 복습했으며 주말에는 총 복습과 틀린 연습문제를 반복적으로 봤고 면접 공부는 새벽에 면접 관련 내용 숙지 및 정리를, 저녁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세 교정 및 표정과 발음 교정, 음성의 높낮이와 속도 등을 항시 피드백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며 발전되는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평원의 심사직은 간호사인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절실했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직으로 입사하고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된 컴퓨터 업무로, 한 손으로 키보드 사용을 하는 점입니다. 신속하게 업무를 하기에는 한 손 타자로는 한계가 있었고 정상인보다 몇 배나 느린 업무 속도가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얻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한 손 특수 키보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업주의 신청으로 지원받아 키보드 자판배열이 다른 특수 키보드를 약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씩 집에서 타자 연습을 했고 지금은 빠른 한 손 타자로 업무 속도의 큰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저로서는 지금 제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꿈만 같고 행복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채용 취업 기회로 막막했던 장애인의 취업보장과 업무의 질까지 높아졌습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있어 회사가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살렸고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채용이 저를 다시 한 번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폐성장애도 완주하는 취업마라톤

한국철도공사 | 류○○



마라톤의 첫 걸음, 보호자로부터 홀로서기의 시작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본가인 의정부와는 반대인 부산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등학생까지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서 일반인 친구들과 생활하고 공부에도 무리가 없었으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주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기에 아직 이른 때라 부모님과 많은 지인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뒤 급히 가족들과 부산 여행을 계획하여 여행 겸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캠퍼스 투어를 하였습니다. 여행 후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생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에 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생활을 위해 기숙사 신청을 하였을 때 이 학교에 많은 장애학생이 대학생생활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였으나, 자폐성장애가 들어와서 대학생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여 기숙사에서 살짝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교에 아는 학생이 있냐는 질문도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특수전형대상자 전형 대학진학을 위한 카페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 역시 부산대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에 입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서로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기로 하여 무사히 학교에 입학하고 그 친구와 같이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며 장애라는 이유로 도전하지 않는 편견을 깨다

입학 후 1학년 1학기에는 학과 동기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학과 로봇동아리도 가입하여 정신없이 지내다가 여름방학이 찾아 왔습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취업까지 생각하니 센터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 대학생활을 좀 더 알차고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개강 당일 수업을 마치고 무작정 센터를 찾아 센터장님과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방학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대만이나 일본 등 근교 해외로 ‘하나로 캠프’를 가고, 장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그리고 사직구장에서 다 같이 야구관람도 하며 장애학생 친구들과 친분도 쌓고 많은 경험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로 하나로 캠프를 다녀온 후 일본에 큰 매력을 느끼고 방학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혼자서 몇 번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용기까지 얻었습니다.

2학년이 끝난 후에는 센터에서 만난 장애학생들끼리 모여 장애학생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였습니다. 2018년 봄에 동아리원들과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라는, 장애-비장애 청년들이 모여 신한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에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제 발로 찾아가고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였으면, 스스로 해외여행을 도전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 및 경험에 대하여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능력이 바탕이 되어서 한국철도공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목표를 결정하며 나의 능력을 기르다

3학년이 끝나갈 무렵,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도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무능력 위주로 평가하여 직원을 선발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키고 있는 공기업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장애인 전형으로 공기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사무직을 주로 선택하는데, 드물게 나의 전공인 기계공학을 살려서 기술직렬로 도전을 하게

되니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지원 시 가산점 요소가 되는 ‘일반기계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 중 필답형 시험까지는 대학생 중 배워 두었던 것도 있어서 무난하게 칠 수 있었으나, 5시간 동안 CAD를 이용하여 기계 부품의 도면을 제작하는 실기 작업형 시험을 준비하는데, 첫 도면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하루가 걸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번 인터넷 강의와 도면 완성을 반복한 결과 실제 시험에서는 5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고, 2019년 여름까지 기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1급, TOEIC 750점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도서관 사서 인턴 생활을 하며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매너와 사람을 응대하는 능력을 기르며 3학년 말부터 공부해 온 NCS 필기시험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지원과 함께 취업 마라톤 결승점에 다가가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고를 보고 일본 여행 중 일본이 철도가 잘 되어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차량 직렬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한 달 뒤 NCS 필기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험을 본 것이라 기대는 없었으나 우연히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시, 면접을 앞두고 주변에서 자폐성장애는 면접에서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여럿 듣고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준비를 하며 저의 자폐성장애와 관련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온 뒤, 내가 대학생 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면접에서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던 것에 감사하였으나 떨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면접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착잡한 마음이 맴돌았습니다.



취업 마라톤 완주. 그리고 회사생활 적응까지

면접을 마치고 1주 후, 저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국철도공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은 것 이였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지원자

분들이 최종선발 인원에 부족하더라도 면접전형에서 낙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들었고, 중증이며 특히 정신적인 장애인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를 들어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15명의 동기들과 신입사원 교육도 무사히 마치고 KTX 고양기지 증정비센터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증정비센터로 발령 후 담당 팀장님께서 제가 큰 문제 없이 회사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입사 후 약 1달 동안 증정비센터에 있는 모든 부서를 돌면서, 현장 부서 팀장님께 부서 체험 및 견학을 시켜 주라는 부탁을 드려서 각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알고, 간단한 업무 체험도 하였습니다. 이후 저의 의견과, 저의 역량 및 보유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제가 근무할 부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고속차량(KTX) 증정비를 하는데, 정비에 대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보유한 덕분에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자주 사용하는 부서인 정비 공정을 관리하는 부서로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철도차량의 증정비란 열차를 부품까지 모두 분리하여 각 부품별로 정비 과정을 거쳐서 열차를 재조립한 후 새 모습으로 다시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는 이 과정의 스케줄을 계획하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실적 등을 입력하는 '공정관리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 배치 후에도 제가 새로운 업무를 받았기에 '공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서류 및 매뉴얼을 읽어 보고 그 외 필요로 하는 MS-Project 등 프로그램 숙지를 위하여 저희 팀에서 단체로 외부 기관에서 주최한 공정관리 관련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수료를 위해 팀장님 및 저희 팀 선배님과 같이 스터디를 하여 저희 팀 모두가 이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Q 글을 마치면서

많은 공기업 합격 수기가 있지만, 장애인 전형으로 공기업에 취업한 정보가 드물다고 느꼈습니다. 저 역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장애인 전형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이 전형을 희망하는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이 참고하셔서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기원하며 취업 수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한국남부발전 입사 및 적응기

한국남부발전 | 임○○



1.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6월, 한국남부발전에 입사한 27기 신입사원 임○○입니다. 사무직군으로 입사했으며, 현재 하동발전본부 경영지원처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애 유형은 청각장애인입니다.(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보통 수어(手語)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농인)과 구어(口語)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나뉩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보통 청력이 완전 소실되어, 아무것도 못 듣고 오로지 수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모양을 봐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구어가 익숙한 청각장애인으로, 1대 1의 조용한 환경 속에서는 입모양을 보고 대화한다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속에서는 항상 전화소리, 말소리 등으로 왈칵지결한 경우가 많다 보니, 대화를 할 때 온 신경을 집중해야 가까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5월까지의 보청기를 통해서 들었으나 연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마스크가 필수가 되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으니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약 4개월 동안 질병휴직을 내고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받고 복직해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입사까지

(1) 서류 전형 - 자기소개서

저는 지금 회사가 첫 직장은 아닙니다.

원래 서울시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약 3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첫 번째 난관, 서류 전형 중 자기소개서 작성은 그간의 풍부한(?) 업무경험 덕분에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어서 서류합격은 나름(?) 잘 된 편이었습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팁

자기소개서는 문항당 글자 수 제한(300~1,000자)이 있기에, 핵심만 요약해서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문항별 글을 쓸 때, 항상 맨 위에 한 줄짜리 요약문을 뽑아서 작성하고, 본문에서 부연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300자 제한이 있을 때는 요약 문구 한 줄과 부연설명으로 마무리, 500~700자 제한이 있을 때는 요약 문구 두 줄과 각 부연설명, 800~1,000자 제한 때는 요약 문구 두세줄과 각각 부연설명하는 식으로,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하면서 동시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르게 녹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덧붙여 각 문항별로 이리이러했다는 단순한 내용만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문항에 적합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작성하여 구체성이 보이도록 작성하는 것이 심사위원에게 본인을 어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필기시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NCS 시험을 보고, 기관에 따라 영어, 한국사, 상식, 직렬별 전공 시험을 채택해서 보기도 합니다.

저는 필기시험의 경우, 인강을 듣거나 이론을 이해 또는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집을 사서 실전을 가정하고,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쪽으로 하여 문제 푸는 기술과 감을 익히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3) 면접시험

청각장애인에게 채용 전형 중 가장 두려운 전형을 하나 뽑아보라고 한다면, 너도나도 면접시험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질 겁니다.

저도 귀가 안 들리다보니 면접관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잘 못 듣거나 잘못 이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이직 과정 중 다양한 기관의 면접을 보면서 항상 면접시험이 제일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면접은 2차까지 있는 경우가 많고, 토론면접, 주제발표 이런 심화면접 유형도 같이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듣기와 발음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특히 이 면접 단계가 정말 부담이 됩니다.

공무원 면접처럼 수어통역사, 속기사, 필담면접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면 청각장애인에게 부담이 덜하겠지만, 제가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느낀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은 경증장애인 선호 현상, 업무 및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현상을 많이 느꼈기에, 현실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는 입사의 벽이 높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사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지원자를 보면서 당연히 더 우수하다고 느껴지는 인재를 선발하는 게 당연하기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제도 중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처럼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특성에 맞게 편의지원을 해주면서 중증장애인 제한 채용의 길을 좀 열어준다면, 중증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입사의 문이 하나둘씩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 교육

입사 후 약 한달 간, 부산 본사, 발전기술교육원, 부산대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어찌어찌 잘 받았지만, 교육 과정 내내 장애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향후 교육 전 채용예정 장애 직원에게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교육기간 중 요청사항 등은 없는지 물어본 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한다면 교육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청각장애인은 음성언어로 하는 교육에 참가 시, 아무 내용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따라서 보통 문자통역사(속기사), 강의록, 동기 교육생 중 도우미를 선정해서 중요한 내용 등 대필 지원과 같은 편의사항을 제공해 청각장애인이 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2) 발령 후

사무직군은 기본적으로 전화나 회의 등을 할 일이 많습니다. 듣는 게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사무직군은 어찌 보면 최악의 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사무직군으로 살아남기 위해 인공와우 수술도 받고 보조기기를 통해 전화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업무의 경우, 메신저 상태 창에 ‘청각장애인입니다. 전화는 못 받으니 쪽지나 채팅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설정하고 최대한 피하고자 합니다(하지만 전화는 매일같이 오네요 ㅎㅎ). 전화가 오면 보조기기를 통해서 받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내용은 주변 직원에게 요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청각장애인이라 전화를 못 받으니 용건을 쪽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있을 때는 직원에게 중요한 내용 등 정리를 요청하는 식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공공기관 인사부서에 꼭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매년마다 의무교육이다, 법정 필수교육이다, 안전교육이다 해서 여러 교육을 진행하는데, 부서별로 참석인원 수를 할당하고 진행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직원

에게는 이런 집합교육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교육 대상자 중 장애인 직원에게는 온라인 교육 등 대체 방안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각 주관부서에 강력하게 검토 요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4. 마치며

공공기관 입사 후, 발령받으면 바로 실전에 투입됩니다.

‘나는 장애인이니깐 남들보다 편한 일, 쉬운 일을 부여해 주겠지’라는 마음가짐은 절대 금물이며, 다른 직원과 똑같은 강도의 일, 때로는 더 많은 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조직 전체로 본다면 장애직원은 극히 드물기에 배려가 드물다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하나씩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無(어학점수無, 자격증無, 학연지연혈연無) 장애인으로 공공기관 입사한 이야기

한국국토정보공사 | 최○○



🔍 들어가기 전

2019년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50만명 속에서 무려 3無(어학점수無, 자격증無, 학연지연혈연無)로 취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많은 장애인&비장애인들에게 ‘꿈의 직장·공공기관’ 입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 1. 인문계 출신 시각장애인이 겪는 취업 현실

저는 시각장애인 5급(좌안 실명, 우안 시력 0.15)과 취업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꽃’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시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시장에서 아무런 스펙이 없는 저는 당연히 거들떠보지 않는 지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기적과 같이 들어가듯 가끔 면접을 보게 되더라도, “운전면허 갖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보이세요?”, “혼자 돌아다닐 수 있으세요?” 등의 단 몇 개의 질문으로 평가되고, 많은 면접에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취업에서도 번번이 떨어졌지만 아르바이트조차 장애인이여서 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없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일용직 알바로 하루하루 버텨내며 취업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자격증? 블라인드 기반 체험형인턴? 뭘 선택하지?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사기업을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블라인드채용은 사실 와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스펙을 보지 않을까?’, ‘장애유형 보고 떨어트리겠지?’ 등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와중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이 없던 저였기에, 자격증을 따야 할지, 정말로 블라인드 채용으로 스펙을 보지 않고 합격을 한다면 이건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애인으로 취업 과정 속에서 받았던 상처가 컸기에 자격증을 준비할까 했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블라인드 채용을 믿어 지원하게 되었고 비록 인턴이지만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음에서 서술할 블라인드 취업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다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 블라인드 취업에 중요한 3가지

첫째, 관련 분야의 현장경험이 중요합니다

인턴을 하며 느낀 것은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자격증은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 업무와 같은 실무는 현장경험 기반의 업무적 센스로 해결되었습니다.

현장경험은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사용됩니다. 서류 전형에서 경험, 경력 평가 지표 혹은 가점으로 쓰이기도 하며, 자기소개서에 남들과 협력한 기억, 팀원들과 불협화음을 해결한 일 등의 항목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상황들이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현장경험은 서류전형뿐 아니라 필기전형, 면접전형에서도 쓰입니다. 필기전형에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문제로 직장생활 문제, 공문서 작성법 등 현장에서 직접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면접단계까지 간다면 더욱더 빛을 냅니다. 직무 기반 면접에서 실제로 경험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말할 수 있어 진정성 있는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업무는 결국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 1급, 토익 850점 등을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필기 전형을 준비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공고가 나오는 모든 기업에 서류를 넣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처음부터 많은 양을 준비하다 보면 취준생 본인에게 부담스럽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니 결국 비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원하는 기업과 원하는 채용절차를 찾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채용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자격증, 어학점수가 없이 서류에 제 열정과 현장경험만을 보는 기업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그러한 곳들은 필기 전형 혹은 면접 전형에서 강점을 보여야 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고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아모르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결국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입니다. 서류전형에서, 내 경험을 적으며, 필기전형에서 내 지식을 살피고, 면접전형에서 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자존감으로 귀결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과 비교해서 평생 안고 갈 신체적 콤플렉스며, 열등감이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자격증도 없지, 눈도 안 보이지 등으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저는 “아모르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씻을 수 없는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기에 사랑하고, 존경받고 또한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을 서류에 적어 내며, 면접관들에게 당신의 밝은 모습을 보여 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결국 '당신'만을 보는 채용이니까요.

4. 마치며

사실 글로는 짧지만 저는 실제로 1년 반 동안 인턴 생활을 하며 현장업무를 쌓았고, 필기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SNS에서 멋진 생활을 뽐낼 때 도서관에 있어 봤고, 주말 소풍 대신 시험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울해지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내 현장경험과 선택과 집중과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제 경험들이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썼으며, 제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공공기관에 입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지? 할 수 있다고!! 혼을 담은 청각장애인의 이야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오○○



🔍 소리 없는 세상에서 보낸 30년

청각장애를 안고 일반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법한 절망감.

난 어렸고 선택이라는 단어보다는 ‘할 수 있다’란 말을 수없이 듣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안 들리는데 이렇게 무서운데...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야, 다른 친구들보다 예습하고 복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힘내자 열심히 하자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올 거야, 사랑한다.”

엄마아빠, 아니 이게 사랑으로, 그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안 들려요!!! 아무리 예습을 해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나도 친구들과 같은 타이밍에 웃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내가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천천히 말씀해 주질 않아요.

죽을 만큼, 아니 딱 죽지 않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잘 듣지 못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림을 그릴까? 만들고 그리는 것은 언제나 자신 있었으니까.

이 막연한 생각으로 미술쟁이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몇 번의 장학금을 받았고 과대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모기업에 입사하였으나 학교와 사회는 너무 달랐습니다.

🔍 그래 떠나야겠어!

많은 고민 끝에 연고도 없는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 환경, 외국인에 대한 편견, 장애 등 끝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긍정의 힘은 다시 한번 성장을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어학 과정을 거친 후 외국인 독일대학 자격 독일어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하여 당시 동양인은 5명도 안 되는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전문성을 익혔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 소통은 창조적인 사고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 들린다... 그런데 들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네?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7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결국 듣고 의사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매번 이리도 많이 해야 하는지... 생명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무섭다... 그래도 듣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 들어야 해. 어떤 방법으로든 내 몸에 기계가 있으면 어때, 들리는 게 중요하지. 결국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죽음의 재활 2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리도 끝도 없는지... 며칠 몇 달이 지나자 들리기 시작하였고, 엄마 목소리, 언니 목소리, 예상보다 막 피꼬리는 아니고...

그러나 현실은 또다시 취업 준비생, 게다가 청각장애라는 핸디캡.

몇 번의 지원과 탈락을 반복하면서 디자인업무와 행정일을 할 수 있는 작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 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공조직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장애의 장벽을 딛고, 조직의 일원으로 거듭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채용을 한다고? 산림치유? 산림복지산업? 그래!! 바로 여기야. 공직이라면 다를 거야. 게다가 정년까지 보장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

결국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합격통지를 받고 기쁨도 잠시.

아니 차가 없으면 출근이 힘들 것 같은데? 집도 구해야 하고, 자가용부터 사야겠는데? 생소한 업무용어, 문서, 업무분장, 끊임없는 전화 업무.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을 거란 두려움, 조심스러워지고, 소심해지고, 눈치 엄청 보게 되고.

어찌지? 밥도 안 먹히고 잠도 못 자겠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별도리가 없음을 난 알고 있다.

국립제천치유의숲은 신설기관이었고 정식 오픈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 누구나 바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나의 장애로 인하여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열심히 그저 또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청각장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지속해서 고민해 주셨습니다. 아 참! 그렇지. 나만 적응하는 게 아닌 걸 잠시 잊고 있었구나. 상대방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말이지... 천천히 하자!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하자...

많은 배려와 격려에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말소리에 집중하였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 때마다 흑여 놓치는 게 있진 않을까 걱정이었고, 특히 전화 업무는 그야말로 난관이

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 후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때는 입 모양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들을 수 있으나 전화로 대화하는 것은 여전히 벅찬 일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센터장님과 직원분들께 되도록 메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폰이 인공와우와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여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또한 센터장님께서 공공기관 경력 출신 근로지원인을 배정받는 건 어떤지 제안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받으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너무나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셨고 감동적인 배려에 차츰 안정을 찾게 되었으며 조직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계천치유의숲에서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시설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 및 자산관리 등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배정받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방문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한 시설 보완공사를 2020년도 처음으로 감독하고 준공하였으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숲길을 방문·이용하였지만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나름의 성과와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가끔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면서, 장애인단체에서 방문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해야 안전하고 건강한 체험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보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생각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더욱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자랑스러워요

“언니 이거 사마귀 사진인데, 조카한테 보여줘.” 몇 시간 후...

“이모!! 대단해요!! 사마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너무 부러워”, “어? 뭐... 뭐가?”

“이모 사마귀랑 항상 같이 있고 뱀도 나온다면서요? 나도 사마귀랑 뱀이랑 보고 싶어요. 이모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 온갖 곤충과 함께 일하면 어떠랴. 우리 조카가 이모를 저리 자랑스러워하는데.

처음엔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조직원으로 동화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기에 나의 방향이 맞는 것일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온전한 조직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국립제천치유의숲에 입사하여 근무한 1년 동안의 나를 돌아보면 나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 조직원으로서의 고통과 기쁨을 모두 알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둘,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언제나 “안 된다.”라는 말만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뿐이고 나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으로 무장하는 중입니다.

셋,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가족들,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동료분들, 그리고 이 기회를 열어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부 시책과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나의 가능성으로 나는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 청년인턴
고졸 채용 | 지역인재 채용 | 장애인 채용

인 쇄 2020년 12월 23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유 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인 쇄 경성문화사

ISBN 979-11-6655-013-3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0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Fax | 044-414-2179 www.kipf.re.kr



ISBN 979-11-6655-013-3